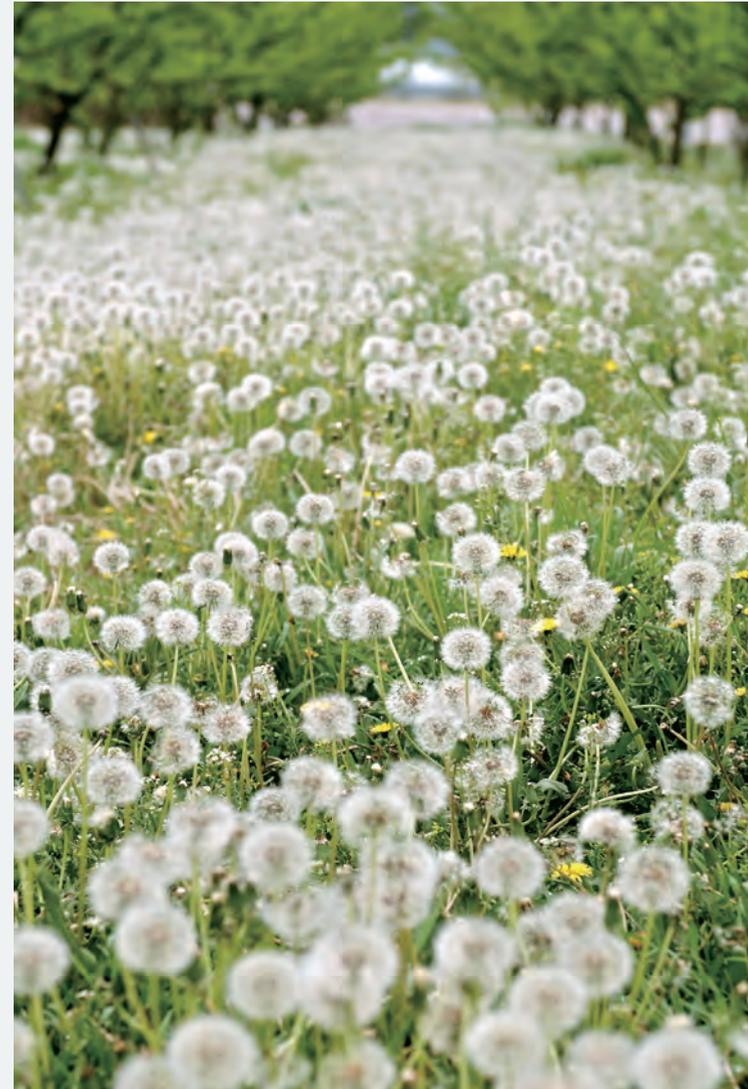


# 평신도 平信徒

평신도 平信徒

2022 Vol. 72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05
탄생
10
자람
21
만남
65
믿음
95
실천
146
구원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공식 로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CONTENTS

## 2022년 통권 제72호

# 평신도 平信徒

발행인	이병욱 요한 금구
담당 사제	조성봉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재홍 사도 요한
편집위원 (가나다 순)	김선동 루카, 김영훈 바오로 나권일 토마스 아퀴나스 박지현 요세피나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석인수 사도 요한, 성솔기 클라라 양진호 사무엘, 이힘 필로메노 최희경 안드레아 표혜리 헬레나
제자(題字)	정은숙 미카엘라
디자인	유소진 아타나시아
인쇄	가톨릭출판사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표지  
"민들레", 전복 고창, Nikon D1X,  
200mm, F 2.8  
주중원 베드로



### 포토-세이(ssay)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

### 여는글

기도하고 묵상하며...

김재홍 사도 요한 | 편집장, 시인, 문학평론가 6

### 믿음으로 자라는 영혼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걸어온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박지현 요세피나 | 편집위원, 방송작가 11



90세에 세례 받은 김정옥 보나벤투라

윤재선 레오 | 가톨릭평화방송 기자 17

###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신도들은 '누룩'의 역할을...

황진선 대건안드레아 | 前 가언협 회장 22



### 이 사람의 신앙 생활

"하느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  
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늘 그 생각을 합니  
다." - 홍사건 대전 한빛고 이사장

나권일 토마스 아퀴나스 | 편집위원 32



### 평협이 만난 평신도

하느님 백성의 대화

윤관식 미카엘 | 광주교구 평협 회장 40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  
랑하여라."(요한 15,12)

정규철 요한, 이해경 수산나 부부 |  
한국ME 대표부부 44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48



### 시-세이(ssay)

'단수 오도송' - 조광호 시몬 신부

김재홍 사도 요한 | 편집장, 시인, 문학평론가 54

평신도가 읽는 '믿음의 양서'

김선동 루카 | 편집위원 56

### 축사

성유축성미사 금경축, 회경축

이병욱 요한 금구 | 한국평협 회장 62

캘리로 읽는 성경

박철 베네딕토 |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회장 64

### 사건으로 보는 평신도

최익형

송란희 가말라 |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이사 66



### 인물로 보는 평신도

화가, 사업가, 노숙자, 장애인... 그리고 다시  
화가 - 쪽방촌 화가 윤용주

이힘 필로메노 | 편집위원 74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과 한국의 평신도  
추기경의 어깨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 가톨릭독서아카데미 회장 80

우리들의 '믿음 터'

나의 기도는 지금 - 전주 전통성당과 최명희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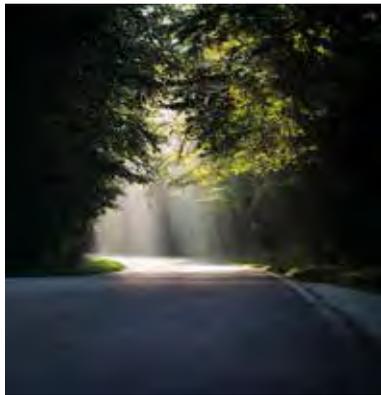
양진호 사무엘 | 편집위원, 영화평론가 86



**한국평협 제55회 정기총회**  
이승훈 요셉 | 가톨릭신문 기자 96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출범**  
성슬기 글라라 | 편집위원 102



**우리는 새 영세자**  
표혜리 헬레나 | 편집위원 110  
**민음을 전하는 사진가들**  
이용열 바오로 | 가톨릭사진가회 회장 120



**내 안의 평화를 위하여**  
이종섭 | 목사, 시인, 문학평론가 129

**교구평협 · 회원단체 소식**  
**평협은 '지금'**  
사무국 134

**건축으로 보는 성인**  
**명동성당 vs 남양성모성지성당**  
임진우 | 건축가, 화가, 칼럼니스트 147



**음악으로 보는 성인**  
**성녀 체칠리아와 음악가**  
전영태 | 중앙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154

**평신도의 순례 일기**  
**로피아노에서 만난 형제들**  
최성주 임마쿨라타 159  
**성모 발현지를 순례하며**  
김원창 미카엘 | 성지순례 전문가 164



**우리의 화살기도** 172

**교구평협 · 회원단체 행사 일정** 174  
**명예기자 명단**



그들은 세상과는 멀었지만 하느님께는 가까웠고  
그들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그들을 하찮게 보았으나  
하느님의 눈에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이었다

『준주성범』 제1권 제18장 중에서



# 기도하고 묵상 하며...

‘신비’에 따라 저는 요일별로 설렘과 안타까움과 희망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환희의 신비’에서 설렘을,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통의 신비’에서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희망 속에서 ‘빛의 신비’를 만끽하고, 수요일과 주일에는 기쁨에 넘치는 ‘영광의 신비’를 누립니다. 이상하게도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비슷한 감정 상태를 경험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매번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다 보니 좋아하는 요일도 ‘신비’를 따라 갑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괜히 마음이 무겁고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니 저로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감정을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월요일과 토요일은 무언가 반가운 일을 겪을 것 같은 설렘 속에서 의욕이 일고, 수요일과 주일에는 기쁨 속에서 감사드릴 일을 만나겠지 하는 활력을 갖게 됩니다.

‘신비’의 느낌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공유하고 있을 터입니다. 살

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일상 속에는 언제나 이러한 ‘신비’의 마술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이번 호 『평신도』 지를 만들면서도 요일마다 미묘하게 변화되는 감정을 느끼면서 기획하고 토론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부활을 선포하는 ‘평신도’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이번 호에도 많은 소식들이 ‘평신도’들을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영혼’에는 가르멜회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와 전 예술원 회장 김정옥 보나벤투라 형제를 만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첫 수련자로 맞으신 백발의 박 라이문도 신부와 아흔 살 나이에 세례를 받은 김 보나벤투라 형제를 통해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느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서울대교구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순택 대주교를 『평신도』 지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교구장이 되어 바뀐 일상에 대한 질문부터 평신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또한 국내외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견해도 여쭙었습니다. 새 교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평신도’들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준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만남은 대전에 있는 한빛고 이사장 홍사건 요한보스코 형제입니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부실 학교를 인수해 20여 년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홍 요한보스코 형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 특집은 세 가지 아이টে็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사건으로 보는 평신도’에는 ‘안락사건’으로 옥살이까지 경험하면서도 독립운동과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일찍이 황해도 안악군 용문면 매화리에 협

+  
—  
6  
+  
김재홍  
사도 요한  
편집장, 시인  
문학평론가

+  
—  
7  
+



동조합을 세우는 등 사회운동에도 앞장섰던 신앙 선조 최익형 로베르트(1890~1950)와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한 그의 신앙 열정을 통해 우리의 우리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물로 본 평신도’에는 화가이자 사업가로, 또 노숙자 장애인으로, 그리고 다시 ‘쪽방촌’ 화가로 힘겨운 삶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윤용주 사도 요한 형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부침과 함께 수차례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윤 사도 요한 형제가 “고통이 없었으면 전 아마 지금 교만해져서 하느님을 부인하고 제가 세상을 사는 것 마냥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두 다리를 가져가신 게 아닐까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주님 은총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한국의 평신도에 대한 에세이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한 뒤 현재 가톨릭독서아카데미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가 바라보는 김 스테파노 추기경과 평신도들의 특별한 장면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지 이번 호에는 유난히 알찬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병욱 요한 금구 형제를 새 회장을 선출한 한국평협 정기총회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평단협을 시노드정신으로 활성화시켜 교회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의 협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도 속에서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서로 경청하며 식별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신임 회장의 육성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지난 1월 방송, 출판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가톨릭 언론인 3단체가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로 통합 출범한 소식도 있습니다(초대회장 이영준 로렌조). 이어서 새 영세자들을 소개하는 기사, ‘믿음을 전하는’ 가톨릭사진가협회 소식, ‘평화’를 소망하는 현직 이종섭 목사의 글, 건축으로 보는 성인들, 음악으로 보는 성인들, 평신도의 순례일기, 화살기도 등 많은 읽을거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신도』와 함께 주님 은총을 누리는 ‘평신도’들이 되길 빌어 봅니다. 아멘.



# 예수의 성녀 테레사와 함께 걸어온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박지현 요세피나

편집위원, 방송작가

+  
11  
+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일생에 걸쳐  
매일같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준주성법』 제3권 제10장 중에서

고즈넉한 길, 그 끝엔 가르멜 인천 수도원의 마당. 나무들이 비켜선 산책길과는 사뭇 다른 정취다. 인적 없는 마당의 쓸쓸함, 닫혀 있는 문, 그 안엔 누가 살고 있을까? 백발의 노(老) 수사님이 나오셨다. 가르멜 수도복 위에 망토와 갈색 목도리까지 두르니 참으로 가르멜인이시다. “나한테는 이게 정복이야. 이걸 벗으면 넥타이며 셔츠며 치장할 게 많잖아.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지. 정순택 대주교께서 얼마 전에 갈색이 가난한 사람들의 색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색 수도복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옷이 된 거라면, 진정 자기만의 옷, 자신을 가장 빛낼 수 있는 맞춤형을 입은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

경기도 파주의 시골집. 10남매 중 일곱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아버님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공자의 말씀 중, ‘의(義)가 아

니면 천하를 쥐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겸손하셨고, 거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며 궁핍한 이들을 내 몸처럼 아끼셨죠. 엄격한 성품이셨는데, 자식들에게겐 자유를 주시고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교리가 아주 쉬웠어요.” 자식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신 아버지를 통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것 같다는 고백이다.

가르멜 수도회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그는 1961년, 서강대에 입학했다. 이 청년은 종교철학 시간에 윤행중 신부님의 「종교의 근본 문제」를 배웠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근거가 있고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군에 다녀와서 예수회 진성만 신부님으로부터 친구와 함께 영세 교리를 배웠다.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돈, 명예, 쾌락, 권세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신부님께서 그걸 강조하셨다. 1964년 10월 4일, 영세를 했다. 이 젊은 지성인은 어떻게 가르멜과 인연이 닿았던 걸까!

“천국을 가기 위한 영혼 구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직장에 다니게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살기가 쉬울 텐데, 그게 겁이 났어. 그나마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직업으로 대학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예수회 사제관이 마음에 들어왔고, 나도 결혼을 포기하고 수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예수회



▼ 새 신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유학갈 때



만 알고 있다가 가르멜이 수녀님들만이 아니라 남자 수도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교리문답 1항) 청년은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 세례 후 3개월 만에 수도생활을 결심했다. 하지만 3년 정도 집안을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한일은행에 입사했다. 점심시간에 명동성당에 가서 조배하고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 바치고, 매일 복음 1장과 서간 1장씩을 읽으며 준비를 했다. 그러다 1974년, 한국에 진출해서 삼선교에 첫 등지를 튼 가르멜회에 문을 두드렸다. 거의 10년을 준비했건만, 치명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 사표를 냈고 은행이 발각 뒤집혔다. 1975년, 신학교 2학년에 편입했다. 그의 나이 서른여섯이었다.

“스물 초반의 어린 학사들을 보니,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형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은행에 가서 내 사표 어떻게 됐나 하니 본부로 올라갔다고…. 그런 나를 보더니, (수도원 입회) 얼마나 어려운 일이나. 36년 동안 뿌리박고 있던 큰 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건데.” 하시며 안타까워 하더라고. 그 길로 명동성당 성모상 앞으로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는 순간, 내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죽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마음에 평화가 왔다. 하느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순교자가 배교할 때, 마음이 엄청 힘들었겠구나. 만일 내가 결혼했다면 하느님을 배반한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입회 때부터 그는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저서, 『완덕의 길』을 잡았고,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그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다. 1975년 5월, 침묵 중에 성녀의 가르침대로 하느님과 살려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복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한다.’는 유혹이 왔다. 당시 완덕의 길 중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당신의 뜻에 우리의 뜻을 두는 것, 그리고 피조물을 이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32.9)라는 말씀이 큰 울림을 주었다. 대테레사 성녀께서 붙잡아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접한 후 지금까지 47년 동안 성소의 흔들림은 그림자도 없었다.”며, 큰 행운이라고 했다.

신부님께서는 1975년 3월에 입회, 신학교 2학년에 편입. 4학년 때 수도복을 입고, 79년 1월에 첫 서원식을 했다. 그리고 종신서원식과 부제품은 1982년에 로마에서 받으시고 1982년, 8월에 귀국해서 그해 9월 인천 수도원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했다. 1987년엔 로마 총본부 총장님께 수련장직을 임명받았다. “제 첫 수련자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세요. 겸손하신 학자 부모님 슬하에서 잘 교육받으신 분이죠. 수련자였던 대주교님께서 성녀가 즐겨 바친 기도문을 번역해 준 기억이 나요. 성녀께서 하루 50번 이상 바치시면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한 화살기도예요.” 수련장으로써 만난 첫 수련자가 서울대교구 교구장이 되어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 되었다. 그 마음이 어떠실는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우리 대주교님을 성인 만드시기 위해 시련도

주시겠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지시도록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뒤에서 기도해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리는 거죠.”

수련장으로써 그는 수련자들을 믿어주고 자유를 주는 편이었다. “성녀께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며 내가 고쳐줘야지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나는 그것을 유혹(자서전 13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물론 장상으로써 잘못하는 건 고쳐줘야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느님께 맡겨드렸지요. 제 기도와 수도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 그가 은행원으로 살 때나 수도자로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지켜온 신념이 있었다. “제가 성무일도 독서를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원칙이 중요하다보니…. 은행원 생활에서 정확한 것이 몸에 밴 것 같은데 수사님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982년 8월에 이스라엘의 가르멜 수도원에 갔을 때, 노(老) 신부님께 어떻게 하면 전례를 잘 할 수 있는지 여쭙었다. ‘나도 이 나이가 되어도 아직도 틀릴 때가 있다. 실수하는 게 인간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고쳐서 잘 하면 된다.’고 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열정적인 모습으로 성녀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을 나눠주신 신부님! 지금도 큰 장래 자세를 고수하며, 여든셋의 노구를 꼳꼳이 세워



▲ 가르멜 재속회원 종신서약식



▲ 망토 입은 사진

기도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말이다. 노(老) 수사님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에 대해 특강을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르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다.



어느새 어둑해진 수도원. 소성당 앞에 신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발소리가 날까 까치발로 서서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만 들어가시라도 극구 마당까지 나오신다. 나는 출발했고 신부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다. 가르멜산 정원의 캄캄한 밤! '임금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라고 하신 그 하늘로 말이다. 1977년, 신학교 4학년 때부터 45년 동안 입어온 갈색 수도복은 낡아 빛이 바랬다. 그 안엔 그가 살고자 했고, 하느님이 원하셨던 참된 진리의 생활이 배어 있었다. 박종인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그 분을 만나 뵈던 날, 내 구원이 거기에 있었다.



## 90세에 세례 받은 김정옥 보나벤투라



윤재선 레오

가톨릭평화방송 기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니다.”

주님 세례 축일이었던 지난 1월 9일 오후 2시, 수원교구 신봉동 성당에서 '늦깎이' 세례식이 거행됐다. 세례를 받은 이는 올해 나이 90세의 원로 예술가인 김정옥 어르신(수원교구 퇴촌본당). 세례식을 주례한 사제는 '빛의 화가'로 찬사를 받는 재불(在佛) 화가 김인중 신부(베드로·도미니코수도회)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남을 축복하는 순간, 사제를 바라보는 구순(九旬) 어르신입가에 살포시 엮은 미소가 번진다.

올해 여든세 살의 노사제인 김 신부의 목소리엔 설렘과 떨림의 여운이 길고 진하게 묻어난다. “예수님께서 9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느님에게는 시간이란 없는 것이긴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2베드 3.8)고 하시잖아요. 오늘 세례를 받으셨으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제일 어린 분입니다. 이제 새로 막 태어나신 거죠.” 하느님 앞에 서기까지 90년이 걸렸지만, 김 신부의 말처럼 그 기쁨을 어떻게 세월의 무게에 비할 수 있을까.

김정옥 어르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건 1년 전. 김인중 신부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이 추구한 분야는 달랐지만 예술가로서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은 애뜻하고 두터웠다고 한다. 김정옥 어르신의 대부가 된 이강남 씨(수원교구 성북동본당, 루도비코)는 이렇게 회고한다.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지냈던 것처럼, 한 눈에 서로를 알아본 거죠. 반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일까. 두 사람은 첫 만남이었지만 예술과 종교를 넘나들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후 주님 세례 축일에 다시 만나자는 두 사람의 약속이 마침내 세례성사로 결실을 보게 된 것.

두 사람이 걸어온 삶의 여정은 다른 듯 같았다. 서울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1974년 도미니코수도회에서 사제품을 받은 김인중 신부. 사제가 된 뒤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친 그는 ‘빛의 화가’라 불리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현지 화단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온 김정옥 어르신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수학한 후 귀국해 성극을 비롯해 100편이 넘는 연극작품을 연출했다. 제35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연극 연출과 영화평론계 1세대이자 거장(巨匠)으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는 등 예술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사제와 평신도로 인연을 맺은 두 대가(大家)가 삶의 철학과 예술을 통해 공통으로 추구한 건 다름 아닌 내면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참된 자유였다. 두 사람이 프랑스 문화예술훈장을 두 차례나 받은 건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던 셈이다. 김정옥 전 회장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자유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술과 종교가 지닌 일치의 정신이었다. 김정옥 전 회장은 세례식 후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



다. “예술과 종교는 어느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예술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결국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이다. 김인중 신부가 김정옥 전 회장에게 붙여준 세례명은 ‘보나벤투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보나벤투라 성인 명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세례식이 거행된 수원교구 용인 신봉동성당(주임 조원식 요셉 신부)은 김인중 신부의 작품이 설치된 곳이다. 성전 내부의 유리화와 십자가는 추상적 작품으로 보는 이들의 신앙적 상상을 자극한다. 유리화를 통해 들어오는 형형색색의 빛은 피조물과 인간을 하나로 아우르며 천상으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준다. 동양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도자 회화 14처는 각자 마음을 비우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는 이들을 이끈다. 아름답고 거룩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구순(九旬)의 김정옥 보나벤투라는 그렇게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다.

사실 기쁨 가득한 세례식 취재는 뜻하지 않게 이뤄졌다. 필자가 다니는 성당의 주임 사제로 사목했던 조원식 신부(수원교구 신봉동본당)와 우연히 통화를 하던 중에 김인중 신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주님 세례 축일에 김인중 신부 집전으로 세례식이 거행된다는 말을 듣고서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해서 성당을 찾았다가 90세 어르신인 세례식임을 알고 취재를 하게 된 것. 기자로서는 이만한 황재(?)가 또 있을까 싶었다.

취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서는 길. 90세에 새로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봤다. 요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물음이 문득 떠올랐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요한 3,4),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요한 3,9) 아마도 김정옥 어르신은 변화를 갈망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갈망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얻게 하지 않았을까. 세례성사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에게 묻는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가슴 뛰는 영적 여행을 너는 잘 하고 있느냐고.



당신만이 다시는  
제 마음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항상 당신만을 향하고  
당신 안에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주성변』 제3권 제40장 중에서

## 평신도들은 '누룩'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식별하고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자의 역할이었고 또 교회의 역할이지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소리를 높이고 증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  
22  
+



황진선 대건안드레아  
前 가언협 회장

인터뷰 기사에는 글쓴이의 판단과 느낌이 가미된다. 그런데 최고위 성직자인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같은 분을 보면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답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면 의미가 반감될 수 있고 열쇳말조차 뽑기 어렵다.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는 수밖에 없다.

3월 10일 오후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정 대주교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은 '세상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느님 앞의 인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국내 노(老) 종교학자의 고백이 떠올랐다.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이 평생의 화두였다고 했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  
23  
+

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이반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다.

시노드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은 교회의 변화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간곡한 요청이자 교회를 살리려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처방으로 들렸다.

청소년·청년 사목에서 강조하신 동반자 사목도 귀 기울여 들었다. 신자나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종교는 존재의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내 생각이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노랫말로 청소년들의 삶과 아픔을 대변하기 때문이라는 어느 사제의 교회에 대한 성찰을 새기게 했다.

Q. 서울대교구장이 되신 지 4개월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일상이 많이 바뀌셨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던 중에 사제 성소를 느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신학교에 편입하고, 교구 신학생에서 수도원(가르멜)에 들어가 수도자가 되고, 생각도 안 해보고 꿈도 안 꾀본 서울대교구 보좌주교가 되고,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 삶에 변곡점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느낀 삶의 변곡점은 단 한 번,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사제 성소를 느끼고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편입한 때뿐입니다. 그 후로는 변곡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순명하는 삶이 이어진 거라고 느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 분은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 세례명도 베드로다. 신학대학 입학 후 삶의 변곡점처럼 보이는 순간도 실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은 은총이 아닐까. 교구장이 된 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Q. 평신도들이 대주교님이 교구장 되신 것을 좋아하는데,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돼야 한다는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추기경님께서서는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빛과 소금 같은 우뚝한 역할을 하셨고, 모범 그 자체이셨죠. 그런데 후임이신 고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로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 대주교님은 긴 시간을 할애하여 고 정진석 추기경님의 공적과 바로 전임 염수정 추기경님의 여러 많은 업적을 상세히 열거하시며 일일이 기리셨다. 이를테면 정 추기경님에 대해서는 국내에 교회법의 탄탄한 기초를 놓은 점, 염 추기경님에 대해서는 2014년 윤지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미사가 광화문 광장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결정적 역할과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선임 교구장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 상세한 내용은 지면의 한계로 아쉽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저로서는 전임 교구장님들을 잘 이어받으면서 새 시대와 2030년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하지요. 앞으로 교회가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에 더 신경을 쓰면서 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Q.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종교가 없다는 무종교인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의 문화가 세속적, 감각적, 표피적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속에서 현대인 모두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잊어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모두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잊고, 유한한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Q. 「사목헌장」 제4항은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 하느님을 식별하고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자의 역할이었고 또 교회의 역할이지요. 큰 틀에서 보면, 낙태나 배아줄기세포 연구 같은 생명에 반(反)하는 문화와 표피적, 감각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문화 속에 교회는 하느님과의 연계성 안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새롭게 보는 생명 문화, 몸이 얼마나 중요한 선물이고 그 속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는지를 가르치는 참다운 몸 신학, 환경과 생태 신학 등을 통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소리를 높이고 증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요즘 한국사회의 정의를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빈부 격차, 부동산값 폭등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이념·계층·세대간 갈등, 소득과 빈부 격차, 가난의 대물림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탓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발달한 후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본, 곧 황금이 주인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대 담론의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자본이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또 하느님을 치우고 사람이 중심인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神) 앞의 인본주의, 하느님 앞에서 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곧 신(神)-인본주의(Neo-Humanism이 아니라 Deo-Humanism)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참된 의미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고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대주교님께서서는 가르멜 수도회 출신으로 영성이 깊은 분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착좌 미사에서도 영성적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성의 뜻과 영성적 삶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영성은 하느님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통교하고 영성을 깊게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길 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성사 등 7성사를 세워주셨지요. 사제가 집전하는 합당한 성사 때에는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 은총이 달라질 수 있지요.”

Q. 현재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교구 시노드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별 대륙별 시노드를 거쳐 세계주교시노드 본회의로 이어지는 것은 처음인데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5차 주교시노드까지는 그때그때 제기된 현안들을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맞게 사회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각 나라 주교들을 대표하는 주교대의원과 관련 전문가 사제와 수도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대표자들의 회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 안에 울리고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지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할 것 없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인공이자 하나의 신앙공동체로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진리와 빛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살아가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차원의 하느님 체험과 경청의 얘기들을 교구, 국가, 대륙, 교황청으로 점차 확대하며 모으고 나누는 것이지요. 주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인데요. 시노드는 어원적으로 함께 가는 길, 함께 걷는 여정이란 뜻입니다. 시노드 교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Q. 청소년·청년 미사에 참례해 보면 그 수가 아주 적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청소년 숫자가 줄어든 데다 교회가 재미와 매력을 주지 못하는 영향도 적지 않지요.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10년 가까이 준비해서 작년에 「청소년사목지침서」를 냈는데요. 교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동반하고 또 청소년 스스로 또래를 복음화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동반하는 것 곧, 사제와 교리교사들은 그들의 주체적 활동에 함께하는 동반자 사목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목자와 수도자,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아픔을 듣고 원하는 바를 나누는 이른바 ‘찾아가는 사목’을 펼치는 등의 다양한 접근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Q. 평신도들이 한국 교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지요.

“교회 초창기에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을 모셔오고, 살리고, 숨기기 위해 대신 박해받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그런 신도들을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자수해서 순교한 역사가 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속적 가치가 만연한 세상 안에서 참된 가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Q.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말씀을 주시지요.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분은 반반으로 나뉜 국민을 감싸 안고 양 진영의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워주는 어머니 품 같은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두 성실하게 살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Q.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자주 쏘서 국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것은 정치역학적으로는 기실 소련 국내와 여러 국제 요인이 함께 작용한 점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은 연원에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세 어린이에게 나타나 소련 공산당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신 후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정치역학적인 변혁의 힘이 모아져 분출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간절한 기도와 염원들을 모으고 정치적 외교적 국제역학적인 노력과 정성이 병행될 때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주실 평화 안착과 평화통일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 대주교께서는 편치 않은 인터뷰였으리라고 느꼈다. 그런데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하시고 1시간 30분 동안 성심성의껏 답하신 것은 평신도들을 사랑하시고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 내내 솔직하심과 겸손하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났다. 어떤 질문에는 예들려 말씀해 주셨지만, 갈등을 키우지 않으시려는 배려로 여겨졌다. 정 대주교는 포용과 겸손과 인내의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시며 모든 인간의 존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김영훈 바로로 편집위원

::

“하느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홍사건 요한보스코

홍사건 요한보스코(71) 형제를 알게 된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번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전 한빛고’ 소식을 묻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한 이야기며, 학교 주변에 심은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깎아놓은 밤톨 같은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말하곤 했다. 그럴 때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빛났다. 충남 당진 태생인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임원을 지냈다. 퇴직 후에는 안락한 생활 대신 평생 꿈꾸던 ‘육영보국’을 결심하고는 대전의 한 부실학교를 인수해 20여 년 동안 헌신, 인성교육의 요람이자 명문학교로 바뀌어왔다. 그의 인재육성은 평범한 한 신앙인이 이뤄낸 사회봉사의 교훈적 사례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가 있다.

글·사진 나권일 토마스 아퀴나스 편집위원

봄이면 교정과 학교 뒷산에 심은 꽃과 나무들이 만발해 수목원이 된 다지요?

“봄에 학교 찾아오신 분들이 다들 수목원에 온 것 같다고 좋아해요. 우리 학교는 자연 학습 환경이 좋아요. 우수한 교사들의 지도 속에 학생들이 지덕체를 함양하며 바르게 자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이틀은 꼭 학교에 갑니다. 학교를 세워 인재를 키우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제 삶의 목표였어요. 주위에서는 나이 들어 편하게 지내지 고생을 사서 한다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로서는 사명감으로 하는 일입니다.”

기업인으로 사셨는데, 인생의 후반을 교육사업에 투신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학부 때 교직을 이수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늘 열망이 있었지요. 학교를 인수했는데 황량한 별판에 낡은 건물, 참 삭막하더군요.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를 짓고 고향 가까운 서



부실 학교 인수한 뒤  
20여 년 사재 투입해  
명문학교로 육성  
인재양성에  
아낌없이 헌신,  
신앙인의 보람된  
노후생활 모범

산에서 백 년 된 소나무 100그루를 옮겨와 심었습니다. 민둥산이던 학교 뒷산에 편백 3000그루를 심어 둘레길을 꾸몄지요. 지금까지 얼추 60만 그루를 심고 물을 주고 돌봤어요. 20년이 지나니 묘목이 커서 울창한 숲을 이뤘습니다. 학교도 크게 성장했지요.”

수목원 같은 학교, 인성교육의 요람

무엇보다 학생들이 인사 잘하고, 얼굴 표정이 밝은 것에 놀랐습니다.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꼭 명문학교 기준은 아니지만, 전교생 24학급 5백여 명에 불과한데,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 전국 주요 대학에 속속 진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대 3명 등 수도권 대학에 33명, 전국 국립대에 142명을 진학시켰습니다. 대전권에서는 인성교육으로나 진학률로나 톱클래스에 꼽히는 명문학교가 됐어요. 무엇보다 사교육 전혀 받지 않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율학습과 방과 후 수업으로 이런 성과여서 더 값집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지요? 지금까지 학교에 투자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돈을 따졌으면 학교 일을 못 했죠.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 확충하고 우수한 교사들을 영입하는 데 썼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힘 닿는 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 지원한 만큼 재단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년 재단에서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학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자율성도 많이 제약돼있고요. 그래도 저는 초지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문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는 성직자에 준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2011년 8월 7일, 청담동성당에서 정의철 다마스 주임신부님께 세례 받았어요. 요한보스코 성인(1815~1888년)이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하고 평생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시잖아요. 제 생활이 요한보스코 성인의 삶과 일치한다면 주위에서 권해서 그대로 세례명으로 정했습니다. 아내 유병옥 율리아나는 1986년에 일찍 하느님 자녀가 됐는데, 저는 사회생활 하느라 많이 늦었어요. 제가 봉

은사 주지로 계셨던 명진 스님과 중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한때 불교 쪽에도 자주 발걸음을 했고, 교회 쪽에도 관심을 가졌지요.(웃음) 그런 제가 신자가 됐으니 다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신앙 가지니 가치관과 행동이 변하더라

세례받으셨을 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인수한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한창 학교 일에 힘을 쏟다가 한숨 돌리고 나니 나이도 들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가톨릭에 마음에 끌린다’고 했어요. 아내가 크게 기뻐하더군요. 바로 성당에 교리공부 신청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알던 분들이나 제 주변분들 중에 신자가 많았어요. 제가 세례 받으니 다들 그렇



게 좋아하시더라고요(웃음). 세례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 늘 기도했다는 사실어요. 감사함이 밀려왔지요. 제가 1남 1녀를 뒀는데, 아들과 며느리, 사위가 성당에 다닙니다. 딸은 아직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기다리면 성당으로 올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요.”

신앙을 가지니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가치관이 변하고 판단의 기준이 변하고, 행동양식이 바뀌었어요. 제 대부(이진무 야고보)가 예전에 같이 직장 생활했던 분인데, 신앙심이 깊으세요. 세례 받고 나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라고. 사학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크고 작은 책임은 다 져야 하는 자리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때 하느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 교육당국의 책임자와 만날 일도 생깁니다. 그분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학교의 관리자일 뿐 사리사욕이 없다. 제 소임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세속적인 욕심이나 부정비리의 유혹을 끊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살이엔 늘 유혹이 있는데, 판단의 준거를 하느님에 두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봐요. 사회적인 욕심이나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달하곤 했는데, 하느님 뜻이 아니라면 단념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하는



## 하느님 백성의 대화



시노달리타스는 가톨릭교회의 유산으로 하느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활동 방식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3천년기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구성적 요소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우리 평신도들도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  
40  
+



윤관식 미카엘  
광주교구 평협 회장

요즘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노달리타스(함께 걸어나는 교회)' 일 것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16차 세계주교대의회대회(2020.10 - 2023.10)의 주제를 '시노달리타스'로 정하고 세계 모든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교구차원-대륙차원-세계차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주대교구는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sup>1</sup>을 맞이하여 사목평의회가 지속적인 선교의 취지로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선포를 교구장께 청원하였고 교구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여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사제평의회에서는 8명의 사제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준비위

1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선교에 관한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1919.11.30.)' 반포 100주년



▲ 제1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

원회는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로 기획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옥현진 총대리 주교를 위원장으로 14명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교구 기획위원회는 3개년 특별 전교의 해를 위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각 대표자 14명(14개 지구 기준)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하느님 백성의 대화'라는 명칭으로 마련하여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이라는 대주제로 '세상을 향한 교회', '쇄신하는 교회' 두 가지 차원에서 제1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2021.5)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대화에서 논의된 35여 개의 항목을 평신도(본당 사목회장, 여성부회장, 교구 제단체장), 본당수녀, 교구 사제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감도 우선순위 4개<sup>2</sup>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제2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2021.10)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를 김희중 교구장께 보고하였고 교구장께서는 교구장 사목서한으로 발표하여 교구민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  
41  
+

2 1. 생태환경 관심, 실천, 2.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 3.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 4. 소통하는 교회.

때맞추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주교대의원대회的主제가 시노달리타스로 선포되면서 광주대교구는 선제적으로 이에 응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시노달리타스 교회 경험’, ‘시노달리타스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 및 본당 차원과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령대별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변화

▼ 제2차 하느님 백성의 대화



에 의견을 내고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해 다수결이 아닌 시노드적 정신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해 함께 경청하고 식별하여 실천 방안을 찾는 하느님 백성의 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고 너무도 고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광주평협은 김희중 교구장의 방침에 협력하여 시노드적 교회가 본당과 지구 차원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가톨릭교회의 유산으로 하느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활동 방식<sup>3</sup>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3천년기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구성적 요소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하느님 백성인 우리 평신도들도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광주평협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본당과 지구, 교구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새롭게 교회됨을 기대합니다.

3 최현순, 『시노달리타스』, 바오로딸, 2022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어느 부부가 ME 부부로 살아온 것이 지금 어떤 점에서 가장 좋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ME 부부로 언제나 함께해오다 보니 지금의 생활이 낫설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정도면 ME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헛된 일은 아니었다고.

+  
44  
+



정규철 요한,  
이혜경 수산나 부부  
한국ME 대표부부

+ 사랑의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부부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을 낳아 키우고, 다시 두 아들이 혼인하여 지금은 손자 셋을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요. 이렇게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얼마나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는 오직 하느님만 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남은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말겠지요.

제가 죽음 앞에 서면 그동안 제 아내 수산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저를 질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낌없이 수산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랑만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인할 때 하느님과 교회와 하객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남편)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으셨지만 또한 갖은 핍박과 조롱을 참아내야 했고,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에도, 배우자가 병들고 약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또 내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부부는 가정공동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관한 문제, 부모와 형제들의 문제 등에서 부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가정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5  
+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연애시절에 아침이슬처럼 상큼한 느낌으로 서로에게 반해서 사랑을 키웠는데, 살아가다보면 어느새 처음에 가졌던 느낌들이 퇴색되고 서로의 사랑에 대한 색깔이 흐려질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반쪽임을 깨달아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혼인하여 살아오면서 행복하였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인 후 절반 이상을 ME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연륜이 쌓여 지금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ME 부부로 살아온 것이 지금 어떤 점에서 가장 좋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적으로 은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주었습니다.

은퇴와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ME 부부로 언제나 함께해오다 보니 지금의 생활이 낯설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정도면 ME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헛된 일은 아니었다고.

몇 년 전 광주ME 가족모임에서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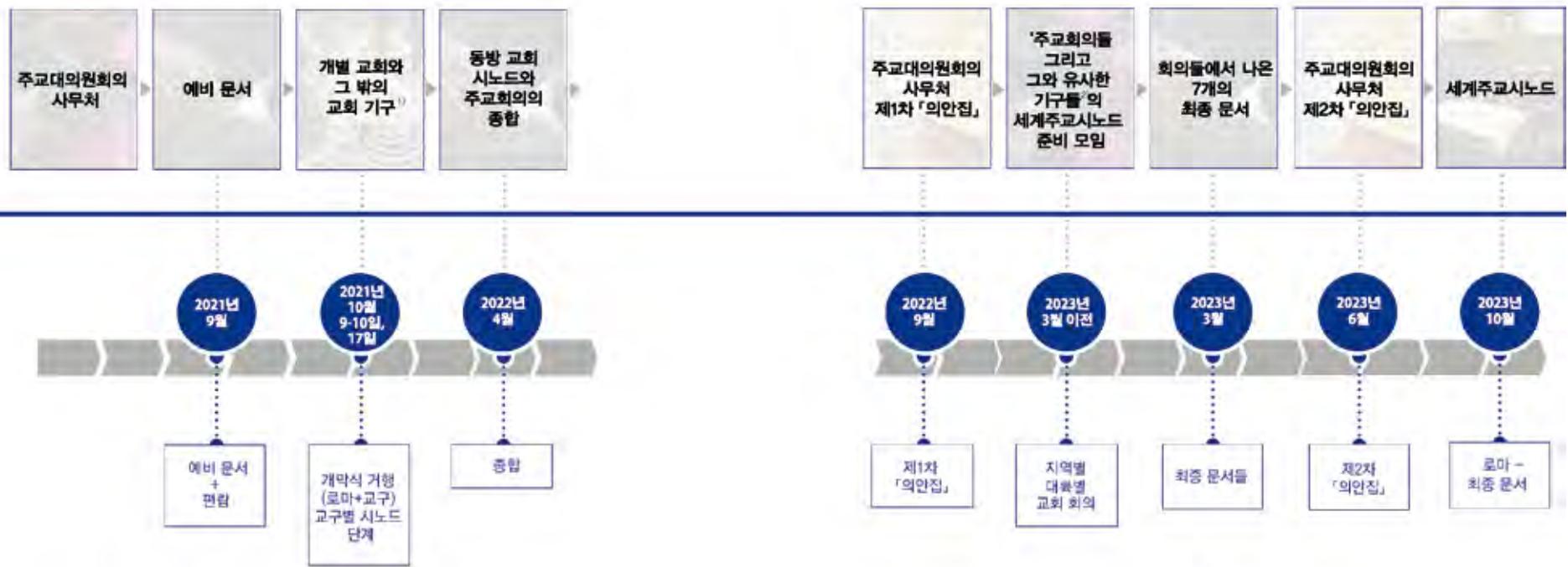
80살이 넘게 살아오면서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노부부 이야기인데, 그 부부는 혼인할 때 살아가면서 큰 일은 남편이 작은 일은 아내가 맡아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살아오면서 보니 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부부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혼인성사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ME주말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ME주말은 부부님들이 지금보다 더 멋지고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1) 고헤림 부서들, 축성 생활회(세계 남녀 수도회 장상 연합회(USG-USG)와 그 밖의 연합회들), 신자 단체들, 고등 교육 기관들.  
 \*2) 아프리카(SECAM), 오세아니아(FCBCO), 아시아(FABC), 중동(CPCO), 유럽(COEE), 라틴 아메리카(CELAM), 북아메리카(USCCB+CCCB).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세계주교시노드 개막 연설 중

새 시노드 홀,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만남과 경청과 성찰의 순간을 우리가 복음의 기쁨 안에서 적어도 세 가지 기회들을 인식하도록 해 주는 은총의 때로 체험합시다. 첫 번째 기회는, 행사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기회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모든 이가 편안하게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계주교시노드는 경청하는 교회가 될 기회, 곧 멈추어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일상의 관례를 벗어나 사목적 근심을 잠시 접어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흡수와 기도 안에서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흡수의 기도를 너무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도 잃었습니다! 이 기회는 자신의 희망에 대하여,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쇠신된 사목 생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 현실들이 주는 신호들에 대하여 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주교시노드는 친밀함의 교회가 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방식', 곧 친밀함과 자비와 온유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비와 온유한 사랑의 자세를 지니고 이와 같은 친밀함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과 더욱 큰 우정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존으로만,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시대의 약함과 가난을 몸소 짊어지며, 상처를 싸매주고 부서진 마음을 하느님의 향유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방식을 잊지 맙시다. 우리를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방식은 친밀함, 자비, 온유한 사랑입니다.

##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2022년 신년 메시지 중

2022년 1월 1일 토요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노드 교회를 살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요청하시는 시노드는 단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원과 소명에 대한 성찰과 참여와 경청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초대입니다. 새해에는 '시노드 회의'가 아니라 '시노드 교회를 삶'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변화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변화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기본 정신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특히 지도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각자의 소명을 깊이 깨닫고 변화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밝아지고 희망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이병욱 회장 인터뷰 중

2022년 2월 13일자 가톨릭평화신문 [1649호]

시노드 정신인 시노달리타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평협에서는 우선 평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노드 정신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협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시노드 정신에 입각해 함께 식별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기도 안에서 식별해 나가는 일,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구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정보의 차이도 있습니다. 당면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구 평협과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신문·출판·방송에 종사하는  
가톨릭 언론인들이 만난  
김수환 추기경의 성자 같은 삶, 일화  
100년 전 우리 곁에 왔다가  
13년 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을 되새겨 보는 책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삶이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라,  
세상이 비정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던 당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람을 사랑했던 당신, 그럽습니다.

한승수(2022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장, 전 국무총리)

10여 년 전 출연히 우리 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자라는 이름으로...

이백만(전 주교황청 대사)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김 추기경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박승찬(김수환추기경연구소 소장)



이 책의 필자들

## 단수 오도송

꼭지를  
들기만 하면  
물은 그냥  
나오는 줄 만 알았다.

거울 속 벌거벗은 노인이  
망연자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 있다

‘그래, 그래, 바로 너였구나?’

.....물이 나오지 않고  
바람 새는 소리만 들린다.

‘내가 평생 그렇게  
찾던 네가 바로 너였구나?’

두 시간 후 혼인 주례를  
해야 하는데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숨을 거두는 예수 곁에서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사내’\*

땀에 젖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일생 등 뒤에 따라오던  
그 희미한 절명의 숨소리에  
시린 알몸을, 그는  
어찌 다 숨길 수 있었을까?

부엌에서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  
급히 수도꼭지를 튼다.

벽 속의 어딘가 저 멀리  
마지막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끄르륵 흑흑 끄르륵

크르르륵 크크, 크르르륵  
마지막 숨넘어가는 소리

“마쳤다.”

◀ 조광호 시문 신부 89년 사제 수품, 현 인천가톨릭대 조형예술대학 명예교수 ▶

\*마르 14:50-52: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이와 같다.

예수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나 벗은 몸에 흠이불을 두른 한 청년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의 일행으로 그를 수상히 여긴 군사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알몸으로 도망친다. 옷을 입을 순간도 없이 열정적으로 잡혀가는 예수를 따르던 그가 자신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자 모든 것을 버리고 몸으로 황급히 도망간다. 약한 인간의 ‘추종과 배신’의 드라마가 축약되어 있다.

좋은 시는 언제나 읽는 이의 “아!” 하는 탄성을 부른다. “크르르륵 크크, 크르르륵” 단수되어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의 소리와 사람이 이 마지막에 내지르는 ‘숨넘어가는 소리’가 일치되는 순간, 읽는 이들은 “아!”하고 탄성을 지르게 된다. 시가 드러내는 의미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지만, ‘크르르륵’ 소리의 일치에서 오는 인지 충격 또한 적지 않다. 좋은 시가 주는 인지적 충격은 시와 일상어를 구별 짓는 또 하나의 경계선이다.

이 작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크르르륵’거리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벌거벗은 노인’, 알몸의 그 육신이 바로 ‘바로 너였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 내가 평생토록 그렇게 찾았던 ‘네’가 바로 ‘너’였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시인은 통절한 자기 확인의 경지에 도달한다.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알몸의 ‘나’에게서 인간 존재의 처연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처연한 알몸’이 자기 확인의 비탄을 넘어 참다운 반성에 도달하는데 「단수 오도송」의 시적 생명력이 있다. 평생 동안 찾았던 나의 알몸은 결국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마르 14,52)난 예수님의 제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깨달음의 순간,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로 그 반성의 순간에 외려 이 시는 윤리적 건강성을 선사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탄성’을 지르게 만든다.

시를 적고 시를 읽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사람에게도 「단수 오도송」이 주는 통절한 자기 확인과 도저한 반성의 깊이는 시적 생명력을 넘어 신앙인의 윤리의식을 가르쳐 준다.

글 / 김재홍 사도 요한 본지 편집장, 시인, 문학평론가

## 평신도가 읽는 믿음의 양서



김선동 루카 | 편집위원

+  
56  
+

### 세계의 심장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김혁태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40×205 / 308쪽 / 24,000원

『세계의 심장』은 신학적인 책이면서 신학적인 책이 아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저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20세기 가장 독창적인 가톨릭 신학자로 오늘날 가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그가 세상을 뜨기 직전에 재출간하려고 했던 게 이 책이다. 그가 이 책에 담으려 한 것은 사랑의 본질 자체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심장 박동에 대한 애정이다. 저자는 이 작품의 서정 문학적 양식이 오늘날에도 호소력이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이 심장의 박동을 느끼기 힘든 청년들에게 이 글을 바쳤다. 그들이 사랑의 본질 자체를 발견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책에 담은 인류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신비



에 대한 비전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또한 이 책을 읽는 청년들이 인간 존재가 간직한 모순, 그리고 이 모순을 넘어서서 총명한 삶과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다. 청년은 물론, 뜨거운 젊은 시절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하느님의 심장과 함께 다시 뜨겁게 타올라 수 있을 것이다.

###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

황인수 지음 / 레벤박스 / 148×200 / 12,000원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연대감, 다정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이 힘들 때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주고받는 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걸 마침내 알아챈 것이다. 성바오로수도회 수사인 저자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기쁜 이야기들을 진지하지만 경쾌하게, 쓸쓸해 보이지만 다정하게 표현하였다. 책은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어 관찰했다. 봄은 아동기와 같은 활기, 생동감, 생명력, 역동 등 설레고 분주한 느낌이다. 독자들은 부두에 묶여 있지 않고 넓은 바다로 떠나고 나아가려는 생명력이 넘치는 배를 만날 수 있다. 여름은 청년기처럼 넘치는 에너지, 바다, 파도, 열정, 이글거리는 태양을 연상시킨다. 배를 타고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항해하는 것은 멋지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인생도 아름다움과 추함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다다. 가을은 중·장년기 사람들에게 센터멘털한 감정에도 눈물까지 선사한다. ‘눈물’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눈으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울게 한다. 겨울은 노년기에 비유되며 사람을 원숙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빈 방’을 보면 그렇다. 저자는 비어 있는 방처럼 살라고 한다. 누가 머물려고 하면 푸근한 침묵으로 내어 주고, 또 떠나겠다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빈 방처럼.



+  
57  
+

## 단식, 나를 위한 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페터 뮐러 지음, 임정희 옮김 / 바오로딸 / 140×205 / 264쪽 / 12,000원

교회 전통에 바탕을 둔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구체적인 7주간 프로그램 제시한 책이다.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하는 것이다. 저자 페터 뮐러는 단식 전문가로서 25년간 '건강한 이들을 위한 단식 주간'의 지도자로 일하면서, 단식 지도자를 양성하고,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의 순례 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1부에서는 단식이 굶는 행위가 아님을 밝히는 단식의 기본 관점을 소개하고 전인적 단식의 경험과 실행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실천과 묵상을 이끄는 영적 동반 프로그램을 알려준다. 7주 동안 단식을 주제로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과 간단한 묵상, 긴장 완화와 신체 운동, 글과 이야기들을 통해 식별과 신중함을 깨닫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이끌도록 촉구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순 시기의 전례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실적이며 흥미로운 내용과 단순한 문체라 읽기도 쉽다. 이 책은 부활을 준비하면서 또는 특별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따라가며 읽고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에 따라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고, 단식을 끝내고 매일 영적 묵상으로 읽어도 좋다.



설명한다. '2장 누가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가?'에서는 교회가 시노달리타스의 실현 주체임을 분명히 한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와 그 하느님 백성을 있게 하는 최종 원리로 말씀과 성사를 제시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3장 어떻게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할까?'에서는 실현 주체인 하느님 백성이 지닌 품위의 동등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저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고유의 일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녀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간다. '4장 새롭게 교회 됨을 위하여서'는 시노달리타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오해들을 짚어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소개한다. 이 책은 한국교회가 교구별로 시노드의 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주체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김혁태 옮김 / 생활성서사 / 416쪽 / 25,000원

인생에서 죽음처럼 자명한 일도 없지만 죽음과 그 이후처럼 알 수 없는 베일에 싸인 '신비'도 없다.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 사건이지만 성탄처럼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는다. 문학이나 미술 같은 예술 작품에서도 그러하다. 교회의 사말(四末: 죽음, 심판, 지옥, 천국) 교리 역시 이성으로 고개를 가우뚱한다. 우리 몸은 죽은 지 5분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전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연옥, 지옥, 천국도 '이해'는 포기한 채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할 뿐이다. 이 책은 이 시대 최고 성서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가 죽음과 부활



##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시노달리타스

최현순 지음 / 바오로딸 / 128×188 / 200쪽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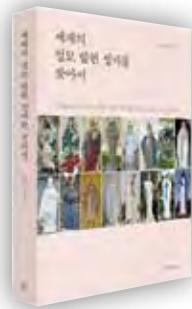
시노달리타스를 명쾌하게 설명한 가이드북이다. 우리가 지금 시노달리타스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용어가 교회에서 지닌 위치나 의미,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1장 시노달리타스란?'에서는 시노달리타스 용어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왜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그리고 종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유,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최고의 재능인 이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현대인을 위한 종말론'이다. 죽음 그 이후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면서 심판, 연옥, 지옥, 천국, 피조물의 완성 등에 대해 과거의 신학적 언어를 되풀이하거나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인이 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다.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그는 당연히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또 과거와 현재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유에서도 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재능인 인간 이성도 풀가동한다.

###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

최하경 지음 / 분도출판사 / 150×225 / 400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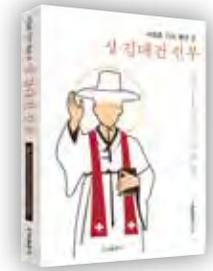
교황청에서 인정한 16곳의 성모 발현 성지를 직접 순례하고 만든 안내서이다. 멕시코 과달루페, 프랑스 루르드, 포르투갈 파티마처럼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성지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실루바, 체코 필리포프, 아일랜드 노크, 벨기에 바뇌, 르완다 키베호처럼 조금은 덜 알려진 성지까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 책은 기행문, 곧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한 글이 아니다. 성모 발현 성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오래도록 조사하여 한데 엮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성지를 시대적 배경 및 발현 당시 상황, 발현 장소, 공인 과정, 성지 소개 등 8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며, 또한 성지 사진과 관련 성화도 풍부하게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이창훈 기자, 발로 쓴 성 김대건 신부

이창훈 지음 / 서교출판사 / 205쪽 / 11,000원

탄생 2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2021 세계 기념의 해 인물'로 선정된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 성(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 이 책은 김대건 신부가 거쳐 갔던 곳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그 생애를 되살피면서 그것이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한다. 1996년 김대건 신부의 순교 150주년을 맞아 마카오에서 훈춘까지 대륙을 종주하고, 강경 나바위에서 안성 미리내까지 김대건 성인 관련 국내 성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쓴 일종의 영적 탐사보도가 이 책의 바탕을 이룬다. 성인의 생애를 압축한 전기이자 묵상서이고 순례기이다. 사실과 의미를 잘 엮어내 25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어 오늘에도 생생한 울림과 벅찬 감동을 안겨 준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의 '희년(禧年)'은 끝났지만, 성인의 삶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존경하올 여섯 분의 원로 사제님!

서울대교구의 모든 교우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제수품 70주년을 맞이하시는 백민관 신부님.

60주년을 맞이하시는 김수창 신부님과 이문주 신부님.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하시는 박신언 몬시뇰님.

김인성 신부님과 정광웅 신부님의 금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제의 길로 나아가신 신부님들께서는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시고

어느덧 사제 생활 반세기를 넘기셨습니다

신부님들은 한국 사회가 격변하던 시기에

사제 생활을 시작하신 이래 오늘날 신자 수 백오십만이 넘는

서울대교구를 일구어내신 주역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가 원로 신부님들께는 감회가 깊은 자리이지만

우리 평신도에게는 한평생을 오롯이 교회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

은 참 목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자리이자

신부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자리입니다.

원로 신부님들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면서”(필리 3,8)

“훌륭히 싸우셨으며 달릴 길을 달리셨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2 티모 4,7).

참으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70주년, 60주년과 금경을 맞이하신 여섯 분의 신부님!

이제 우리 교회는 시노드 정신으로 살며

새로운 복음화 길을 걸으려 합니다.

원로 신부님들의 지난날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세상의 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영육간에 평안하시어 신부님들께서 살아오신

목자의 길을 따르는 후배 신부님들과 저희 평신도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댈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부님들의 금경축과 60주년과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 4. 14. 성목요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이병욱 요한 금구



광야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으로  
가득차 요르단 강에서  
투아으셨다 그리고 성경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일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르가 4.1-2



주님 당신을 믿으며 순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준주성법』 제 3 권 제 45 장 중에서

# 최익형

## (崔益馨, 로베르토, 1890~1950)

송란희 가밀라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이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평신도 최익형은  
독립운동과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일찍이 협동조합을 세우는 등 사회운동에도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꽃처럼 살았다.  
자신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였으며  
신앙의 열정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였다.

### 안악사건(安岳事件)으로 옥살이하다

1910년 11월 황해도 신천 지방에서 조선인 160명이 동시에 검거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안악사건'이다. 일명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안중근(安重根, 토마스, 1879~1910)과 사촌인 안명근(安明根, 야고보, 1879~1927)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자금을 모집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해서 및 서북 지역 민족 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빌미로 삼았으며, 김구, 김홍량 등 황해도의 민족지사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이때 안명근의 매부 최익형도 함께 검거되어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익형(崔益馨, 로베르토, 1890~1950)은 1890년 1월 25일 황해도 문산면 원성리 상촌에서 아버지 최호원(崔豪元, 세례자 요한)과 어머니 이(李) 씨 사이에서 10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최호원은 신자가 아니었으나 천주교 집안이었던 처가의 권유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늦게 신자가 되었으나 매우 열심히 안악읍 비석거리로 이주한 후에는 공소회장을 지냈으며, 1931년 경에는 평안북도 운향시 본당의 전교회장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일 년 후 다시 돌아와 황해도 신천 본당에서 전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매화동에 정착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10남매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3남 최익훈(崔益勳, 마티아)은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사제가 되지 못하고 1927년에 병사하였으며, 장녀 최익수(崔益洙) 바르바라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에 입회하여 13년 동안 안성 본당의 안법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42년에 선종하였다. 차녀 최익순(崔益淳, 요안나)은 원산에 있던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하기도 하였다. 그중 막내 최익철(崔益喆, 베네딕토)은 1950년 11월 21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우표 모으

는 사제'로 유명했던 최익철 신부는 2020년 98세로 선종하였다.

최익형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우도(Oudot, 吳保祿) 신부가 매화동에 설립한 봉삼학교(奉三學校) 출신이다. 봉삼학교는 황해도 지역 최초의 사학(私學)으로 남자부에서는 교리 및 한문을, 여자부에서는 한글, 가사, 기도문 등을 가르쳤다. 1908~1909년에는 4년제 사립학교로 성장하였으며 1912년부터 양잠 강습소를 개설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최익형은 학교 재학 당시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단으로 교육 및 계몽 운동, 출판 운동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단체였다. 안악사건이 일어나기 전 최익형은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의 사범속성과를 수료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어 경기도 이천에서 교편을 잡다가 안악으로 돌아와 있었다. 안악사건으로 검거된 최익형은 1911년 1월에 붙잡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1914년 10월

27일에 서대문형무소에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최익형은 안악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교회 일에 봉사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 그의 사촌 처남 안정근으로부터 군자금 모금을 부탁받고 활동하다가 1921년 또 한 차례 체포되었다. 그는 해주 감옥에서 복역하였고, 1923년 9월 말 만기 출옥하였다. 전과 때문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던 최익형은 봉삼학교 학감으로 근무하며 유지들로부터 학교 발전 기금을 모금하여 학교를 후원하였다. 그러면서도 봉삼학교 출신 가운데 민족의식에 눈뜬 청년들을 자비로 상해로 망명시키기도 하였다.

#### 협동조합을 세우다

1928년 12월 2일 자 《동아일보》에는 최익형 씨의 사회로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조합원은 20명이었으며 자본금은 300원이었다.



▲ 최익형의 모교인 봉삼학교 여자부 학생들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 수녀들. 최익형은 매화동 선교회 활동을 통해 봉삼학교 운영비를 담당하였다.

“황해도 안악군 용문면 매화리에서는 유지 김영환, 임성빈 양씨 외 7인의 발기로 객월 18일 오후 7시에 동리 사립 봉삼학교 교실 내에서 회원 20여 명이 집회하여 최익형 씨의 사회로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거한 후 제반 사항을 결의하고 동 10시 반경에 폐회하였는데 피선된 임원과 결의사항은 여좌하다 하며 동 조합을 설치함은 다수인의 소액의 자금을 합자하여 농촌에 이용되는 각종 농기구 및 일용 잡화 등을 구입하여 염가로 구매하여서 일반 동민의 소비절약을 목적함이라더라.”



《동아일보》 12월 2일 자(왼쪽)와 12월 11일 자. 최익형이 조합장으로 활동하던 안악군 용문면에 설립된 ‘매화 협동조합’ 관련 기사이다.

12월 11일자 같은 신문에는 ‘안악 용문면에 협동조합 설치’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조합장은 최익형, 감사는 최봉균, 이사는 임성빈·김승환·강두호·김봉목·위용혁이고 출자는 한 사람당 1구좌만 가능하며 1구좌는 10원이었다.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으니 1구좌가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나타난 협동조합은 1919년 3·1운동의 흐름 속에서 설립된 소비조합들이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이들 협동조합은 1919년에 설립된 명칭 미상의 소비조합과 1920년 4월과 5월에 설립된 강제공익조합 및 목포소비조합 등이었다. 협동조합운동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전반 사이에 더욱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하였기에 1928년에 설립된 ‘매화 협동조합’은 한국협동조합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의미적이다. 특히 개신교와 천도교의 협동조합사와 비교하여 좀더 깊이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 발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국 가톨릭교회 평신도의 생애와 주요 활동을 새롭게 인식하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최익형의 활동은 교회 활동으로도 활발하게 이어진다. 그는 조합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매화동 본당에 선교회를 설립하였다. 1930년대 초에 설립된 매화동 선교회는 설립 10년 만인 1941년에는 총 자본금 13,000원, 연수입 3,300원에 이르는 탄탄한 선교회로 성장하였다. 이 수입으로 봉삼학교 유지비의 절반과 성당 경상비, 전교사 2인의 급여까지 지불하였다. 매화동 선교회는 《경향잡지》 1941년 3월호에 “황해도 매화동 교회 선교회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교회 자치의 성공적인 표본으로 소개되었다.

“...그전부터 먼저 껌 정신을 가진 교우들이 있는 지방에는 일찍이 이 방면에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러는 커다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지방교회도 더러 있나니, 우리는 이번에 황해도 안악군 매화리 교회 내 유지 교우들로 조직된 선교회(宣教會)를 지방 교회 경제적 자치 준비의 생활한 표본으로 전선 모든 지방 교중 앞에 추천한다. ...매화동 선교회가 창립되기는 불과 10여 년 전의 일로서 당시 매화동 유지 교우들은 해지방 전교 사업을 돕자는 취지로 선교회를 조직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 1원을 증수하고 찬조회원들의 기부



◀ 1941년 3월호 《경향잡지》. 최익형이 이사로 활동하던 매화동 선교회는 “교회 자치의 성공적인 표본”으로 소개되었다.

를 받아 7, 8월이란 기본금을 세우게 되었다. 최익형 늘벨도 씨와 옥천 베드로 씨 이외 5, 6인 유지교우가 선교회의 이사가 되고 이 이사회가 저 기본금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오늘의 커다란 결과를 얻게 되었나니, 선교회의 기본이 이처럼 견고케 되었음에는 저 이 사들의 교회를 위하는 붉은 정성이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선 교회의 현금사업을 보면 당 지역 교회에서 경영하는 봉삼학교의 유지를 절반 이상 거들어오고 전교사 2인을 두어 전교하며 성당 내 모든 비용을 담당하여 오는 중이다. 이상과 같이 선교회의 수입이 1년에 3,300원이나 되나 당지 교우들은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지방 교우들과 같이 또한 교무금을 성심으로 헌납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미상하나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경제적 자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지 교회가 비록 일개 촌교회에 불과하나 다른 도회지 교회에 앞서 솔선하여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선각자로 되어 있다.”



▲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한 이들이 광복 후 모여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앞줄 가운데가 김구이고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익형이다(1946. 1. 23).

지목되었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최익형은 장연으로 이사하여 본당의 재정 담당 회장을 맡아 봉사하다가 1947년 월남하였다. 월남 후 인천 용진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중 1950년 10월 15일 낙오된 국군을 집에서 숨겨준 것이 발각되어 공산군에게 총살당하였다. 최익형은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평신도 최익형(崔益馨, 로베르트, 1890~1950)은 독립운동과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일찍이 황해도 안악군 용문면 매화리에 협동조합을 세우는 등 사회운동에도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꽃처럼 살았다. 자신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였으며 신앙의 열정을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였다. 무엇보다 ‘함께 걸어가는 길’을 모색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하는 평신도이다.

당시 매화동 선교회는 “매화동 교회는 실로 닭 가운데 학이요, 학 가운데 봉황이라 할지니 만일 조선 모든 지방교회가 이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비록 구라파가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메리카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조선 가톨릭은 엄연히 그대로 서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처럼 지역 교회의 경제적인 독립을 기대하는 교회의 희망이었다.

한편 최익형은 1934년 직접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임무를 맡고 돌아왔다. 바로 안악에 거주하던 김구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해로 보내라는 밀명으로, 김선량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어 호송하게 하였다. 이러한 여타의 활동으로 최익형은 일제에 의해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 화가, 사업가, 노숙자, 장애인... 그리고 다시 화가 쪽방촌 화가 윤용주

이힘 필로메노

편집위원, 가톨릭평화방송 보도제작부장

+  
74  
+

“고통이 없었으면 전 아마 지금 교만해져서 하느님을 부인하고  
제가 세상을 사는 것만양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두 다리를 가져가신 게 아닐까요?”

화가, 사업가, 노숙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다시 화가.

별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화가 윤용주 씨(요한사도)에게는 인생을 표현한 단어들이다. 전주에서 태어나 15세 때부터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화가들에게 어깨너머로 한국화를 배웠다는 윤씨.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30대 때까지 전업화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윤 씨는 이 무렵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그림만 그려서는 가정형편이 나아지질 않자 ‘건설 중장비 임대업’을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1998년 사업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나마 있던 전셋집엔 빨간딱지가 붙었다. 중장비는 모두 경매에 부쳐졌고, 단란했던 가정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법적으로라도 남남이 되지 않고선 아내와 어린 두 자녀에게까지 빚쟁이들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씨가 사장님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거쳐 노숙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노숙인이 된 그의 입에서는 매일 신세한탄이 이어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만 수차례. 한번은 소주 26병을 들이켠 적도 있었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다. 그런데도 기적처럼 살아났다.

+  
75  
+

“건물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자동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차 지붕이 찌그러졌지만 저는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에도 살아남은 윤 씨. 가족들과 만날 순 없는 삶이었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차근차근 빛을 갠다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망가진 건강 때문에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건설현장의 많은 분진과 독성 먼지도 그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였다. 결국 그는 먼지로 인한 폐기종으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극도의 절망감과 상실감 속에서 술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삶이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갔다. 당뇨 합병증과 골수염을 이 때 앓게 됐다. 어쩔 수 없이 국립의료원에 몸을 누일 수밖에 없었다. 두 다리를 절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병원에서 사도직 활동을 통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다.

“지금도 성함을 모릅니다. 수녀님이 환자들을 대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수녀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방황했던 그 시간을 그때부터 바꿔보아겠다고 결심했지요. 삶이라는 것이 다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하고요.”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돼서야 만난 하느님은 이제 그의 삶의 희망이다. 지난 10년 사이 양쪽 다리를 모두 절단한 윤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에서 지내고 있다. 더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에서 겪은 고통 안에서 발견한 하느님의 사랑은 그를 신앙인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림으로 세상을 보고, 그림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사업가, 일용직 노동자, 노숙인을 거쳤지만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원래의 талан트는 화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너무나 어두워서 세상에 빛이라곤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에게 삶의 빛이 되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알게 됐다.

윤 씨는 그림 실력도 인정받았다. 2017년 국제장애인미술대전에서 용담담 상류 죽도의 풍경을 그린 작품 ‘산하(山河)’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개인전도 이미 두 차례 열었다.

윤씨가 쪽방에서 붓을 손에 쥐고는 ‘일필휘지’로 나뭇가지를



그려 나갔다. 화선지 위로 붓이 지날 때마다 피어나는 나뭇가지와 꽃봉오리가 무척 생생하고 아름답다. 윤 씨의 그림 속 꽃은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것만 같다.

코로나19로 더욱 힘겹게 지내고 있다는 윤 씨. 코로나19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병원을 헤매다 며칠 뒤에나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가 다니는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다 보니까 그 병원은 응급실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이 조금 더 힘겨워지긴 했지만 그는 주님을 본받고자 사랑 실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통증으로 인

해 하루 다섯 번씩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다. 신체를 절단한 환자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환상통’ 때문에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는가 하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그는 동자동 620여 가구 주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다. 자신처럼 병원에 가야 하는 쪽방촌 이웃을 돕는가 하면, 주거시설을 살피는 것도 그의 몫이다. 몇 해 전에는 청주교구 두촌본당 성전 건설을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린 적도 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가장 은총의 시기라고 말하는 윤 씨. 그는 외려 두 다리가 있었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고통이 없었으면 전 아마 지금 교만해져서 하느님을 부인하고 제가 세상을 사는 것 마냥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 두 다리를 가져가신 게 아닐까요?”



## 추기경의 어깨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독서아카데미 회장

+  
80  
+

“여기 들어와 학생들을 집아 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되면 전국의 신부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구속을 각오하고 맞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가서 지시한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하라.”

1987년 봄 어느 날 저녁 무렵 명동성당을 찾았다. 대학 시절 동아리 회원들을 오랜만에 만나러 명동으로 나온 터였다. 이날 모임은 동아리 후배였던 박종철 때문이었다. 그해 1월 16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그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요절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일로 시국이 뒤숭숭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명 두 명 연락이 취해지면서 명동 모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다. 대부분 박종철과는 10년 정도 학번 차이가 나는 동아리 선배들이었다. 다들 박종철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러나 동아리 후배라는 점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약속 시간이 남아 조금 일찍 나온 한 선배와 명동성당에 들렀다.

+  
81  
+

사제 한 분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제복 차림으로 뒷짐을 진 채 마당에서 대성전 침탑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그리 넓어 보이지도 않고 강인해 보이지도 않는 어깨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침탑을 바라보았다. 침탑이 어둠에 묻혀가고 있었다. 곧 불이 켜지고 십자가의 빛이 주위를 밝힐 거라고 생각했다. 옆에 섰던 선배가 낮게 말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네.”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가 마당에서 교회 침탑을 바라보는 장면을 그 후에도 보지 못했다. 그때 추기경은 왜 침탑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한 달쯤 뒤 5월 18일, 명동대성당에서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와 함께 박종철을 위한 특별추모미사가 열렸다. 평일인데도 2,000여 명의 신자와 민주인사가 운집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카인과 아벨에 관해 강론했다. “너의 아들, 너의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탁’ 하고 책상을 치자 ‘억’ 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리 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 아 니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당시 시국으로는 위험한 수위였다. 추기경의 신변을 걱정한 한 신부가 강론이 끝나자 바로 추기경을 사 제관으로 모셨단다. 이날 미사에 참례했던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전 해 들었다. 그리 넓어 보이지도, 강인해 보이지도 않던 추기경의 어 깨 뒷모습과 위험한 수위의 강론 장면이 오버랩되었으나, 깔끔하게 겹쳐지지 않는 느낌이였다.

한 달 뒤 6월, 을지로와 퇴계로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방송사 직원이었던 나는 동료 두 명과 시위현장으로 갔다. 나에게 취 재나 제작 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기록은 해 두어야 할 것 같 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시위대와 진압 경찰의 대치가 이미 격렬 해진 때였다. 을지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최루탄이 날아왔다. 따가 움과 눈을 뜰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뒤로 물러나다 한 건물 옥 상으로 피신했다. 동행했던 동료 한 명은 시위대에 휩쓸려 들어갔다.

진압 경찰에 밀려 명동성당으로 피신한 시위대는 농성에 들어갔다. 명동성당 바깥쪽은 전경 수천 명이 저지선을 만들었고, 안쪽에서는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을 봉쇄했다. 명동성당은 외톨이 섬이 되었다.

동료 한 명이 시위대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명동성당에 갇혀 있다 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들이 지나도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직장인 이 무단결근을 한 셈이고,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어떻게든 그를 데려 와야 했다. 그날 동행했던 동료와 퇴근 후 명동성당을 찾았다. 전경에 게 방송사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저지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바리 케이드를 치고 성당 내부 출입을 통제하던 시위학생은 우리를 막았 다. 다행히 아는 수녀를 통해 성당 안 동료와 연락이 되었다. 직장에 서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으니 빨리 나와 출근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는 농성이 지속된 6일 내내 명동성당에 머무르다 회사에 복귀했다.

그를 통해 농성장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다. 연일 시국토론회가 열렸고, ‘넥타이 부대’라 불린 일반 시민들이 농성 을 지지하며 명동 일대를 뒤덮었다. 성당 내부로 쌀, 돼지고기, 김 치, 침구 등 지원물품이 쇄도했고, 계성여고생들이 철책 너머로 보내 준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라고 했다. 서울교구 사제단 회의는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들에 동참하 며 이들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명동성당은 태풍의 눈이 되었다. 안기부 차장과 서울시경 치안국

장은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와 교회가 학생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학생들을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기경은 “여기 들어와 학생들이 집을 집어 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되면 전국의 신부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구속을 각오하고 맞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가서 지시한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하라.”라고 대답했다. 추기경과 사제들은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요구했다. 15일 농성을 해제하며 성당을 나설 때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후 6월 말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참여한 ‘국민평화대행진’을 거치면서 명동성당 농성은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성당 내부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동료의 이야기와 뉴스를 통해 사태 진전을 지켜보면서 넓지도 않고 강인해 보이지도 않던 추기경의 어깨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2008년 9월, 추기경이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0월에는 위기가 닥쳤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원이면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추모 특집방송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내 여러 부서가 협조해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 자료, 수도권 보유 자료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추기경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를 구성했다. 언제 선종할지 몰라 제작에 속도를 내야 했다. 다행히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한 후에도 추기경은 여러 위기를 잘 견뎠다. 마침내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경 추기경이 선종했다. 그날 밤 11시 30분 특집 다큐멘터리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가 방송되었다. 20일에는 장례미사를 생중계했다.

17세기 근대 과학혁명을 완성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턴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선각자의 말을 빌려온 것이란다. 우리가 누리는 멋진 것들은 우리 앞을 살았던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쌓아올린 지식의 축적과 퍼올린 정신적 깊이, 실천을 통해 보여준 사랑의 넓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어느 봄날 보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어깨는 우리가 더 멀리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든직한 어깨가 되었다. 민주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추기경은 “많이 사랑 받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고 심상치 않은 유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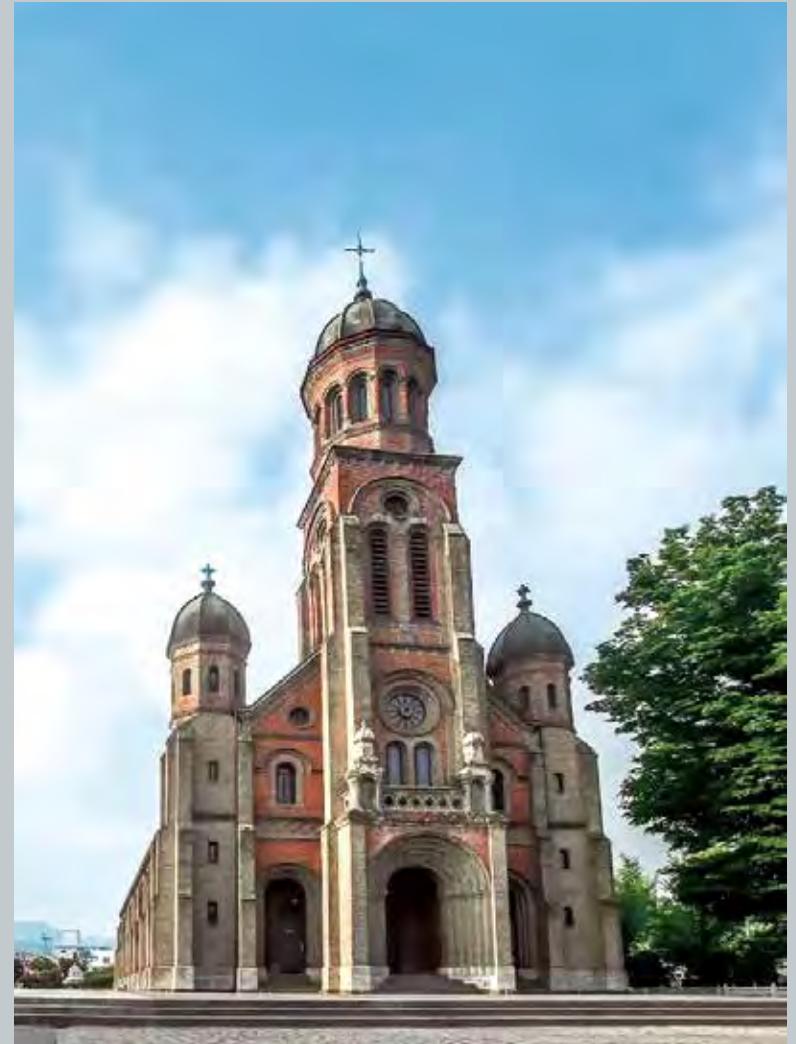
# 나의 기도는 지금

전주 전동성당과 최명희문학관



나는 성당도, 이 사회도,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  
잠시 마음을 앓힐 수 있는 곳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박하게 바랄 뿐이었다.

봄날의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열려 있는 성당 출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양진호 사무엘  
편집위원, 영화평론가

너무나 맑았던 날. 올해 첫 학기 특강 녹화도 끝내고, 회사의 급한 업무도 마무리하고 나니 선거날이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해둔 덕에 전주 전동성당에 다녀올 여유가 생겼다.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도 봄기운에 들뜨는 날이었다. 성당이 외부 수리 중이라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말이다.

전동성당은 신해박해(1791년, 정조 15년) 순교터였다. 정조는 재위 기간에 많은 개혁을 이뤘지만, 성리학의 교조화와 탐관오리의 수탈과 같은 문제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천주교는 정체된 사회를 변화시킬 학문이자 종교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당시 정조의 개혁을 도왔던 남인(南人)은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신해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그런 지식인들 중 하나였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을 뿐이지,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신주를 태우고 가톨릭식 장례를 지낸 그들의 행동은 경직된 유교 사회 안에서 커다란 주문이 될 수밖에 없었

다. 그래서 정조는 혼란을 막고 개혁 정치를 관철하기 위해 두 사람을 처형해야 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885년에 한국에 온 보두네(Baudounet) 신부는 그들이 순교했던 순교터를 매입해 1908년 그곳에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성당을 짓게 되었다. 정치적인 희생을 품은 성전. 그것이 지금의 전동성당이다.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치러지는 날에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폐해진 민중의 삶을 꺼안은 쉼터 같은 곳이었던 성당.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민생 안정', '정치 개혁' 같은 구호들은 자연스럽게 그 풍경에 겹쳐지고 있었다. 아직 팬데믹의 출구에 다다르지 못한 지금. 후보들은 정치를 통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며 우리 앞에 나섰다. 외부 공사 중인 성당 앞 순교자 동상의 너머에 한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의 눈에도 지금의 우리 사회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성당처럼 느껴졌을까. 그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성당도,





이 사회도,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 잠시 마음을 앓힐 수 있는 곳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박하게 바랄 뿐이었다. 봄날의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열려 있는 성당 출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 뒤쪽을 조금 둘러보니 '여행자들을 위한 성가책'을 비치해둔 박스가 보였다. 다른 많은 종교들처럼 한국가톨릭도 신자들끼리의 사회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 그리고 종종 성당에서의 그런 주기적인 만남과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런데 전동성당에서는 그런 사회 공동체적 연결과 관계없는 신자들을 위해 이렇게 따로 성가책을 준비해두었다. 깊게 연결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배려. 전동성당은 순례지이기 때문에 그런 순례자들을 위한 연결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당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신비감에는 순례객에 대한 배려 이상의 그 무엇이 담겨 있는 듯했다. 말없이 하나의 분위기 속에 머물게 하는 기도. 오직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 그런 기도의 고요함이 성당 안에 투명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손님이면서 손님이 아닌 것 같은 기

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 성당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받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는 나에게 연결된 불필요한 관계의 플러그들을 다 빼놓을 수 있었다. 그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자연스레 눈길이 갔고, 그것이 성당 안으로 촘촘하게 들어와 고요한 분위기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햇빛이 우리를 느슨하게 연결하는 기도 같다고 생각했다.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최명희문학관에 먼저 들렀었다. 거기서 나는 최명희 작가가 신인이었던 시절에 쓴 엽서 하나를 보았다. 1981년 3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즈음과 같은 봄에 친구인 신경림 시인에게 보낸 것이었다.



어제는, 비몽사몽간에 너를 만나고  
 무망간에 맞난 점심을 먹었는데  
 잘 먹었던 말도 못하여/마음에 걸리었다  
 (중략)  
 형님같은 나의 친구 경림아……  
 너를 생각하면 마음 속에 눈물이/맺힌다.  
 나의 부실한 젊음은, 네가 있어/지탱되고 있다

바람에서 봄의 체온이 느껴질 때 떠올린 친구. 아마도 그는 최명희 작가에게 성당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듯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을 사람. 그에게 짧지만 간절한 마음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이 건조한 지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주는 사람. 그녀는 그런 친구가 자신의 '부실한 젊음'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했다. 나

도 그런 든든함을 성당의 고요 속에서 느꼈던 것 같다.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일단 자신에게 기대 말을 건넬 수 있게 만드는 침묵의 따스함.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함. 그런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한쪽 손을 내어주고 그와 연결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긴 팬데믹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누구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가는 지금, 나는 고요하지만 든든한 손길을 내밀며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당 같은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을까? 성당 의자에 앉아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순례객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 속에서 신자들을 믿음으로 연결하려고 했을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두 순교자도 그렇게 누군가의 성당이 되어 주지 않았을까.





성당을 둘러본 뒤에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낙서판에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행복하세요'라고 수줍게 얘기하는 고양이 주변으로 토끼와 사자 같은 동물들이 모여 있었다. 복잡한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무표정에 가깝지만 분명 상대방의 감정에 잘 기대고 있는 그들이 마치 성당 안에서 만났던 순례객들처럼 느껴졌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쯤에는 선거 결과를 보며 아쉬워할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때 그 동물들의 담백한 표정과 성당의 분위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완벽하게 소통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기억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소통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혹은 우리는 그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우리의 기도도 언제든지 보수공사를 통해 조금씩 더 완벽해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준주성법」 제3권 제14장 중에서

일편단심 진리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은  
온 세상이 떠들어도 교만치 않을 것이요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만 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찬미한다 해도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 한국평협 제55회 정기총회

이승훈 요셉  
가톨릭신문 기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병욱 요한크리소스토모, 담당 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이하 한국평협)는 2월 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한국평협은 이 자리에서 제24대 한국평협 회장으로 이병욱(요한크리소스토모) 회장을 선출하고, 신임회장단을 구성, 2022년을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총 체험의 해'로 살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손희송(베네딕토) 주교가 주례하는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가톨릭대상 시상식,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 중에는 ▲2021년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제24대 임원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한국평협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을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총 체험의 해'로 살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평협은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총 체험의 해'라는 실천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세상과 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경청)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식별) ▲세상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하느님께 여쭙기(성찰) ▲세상과 주

어진 역할 안에서 참여로 응답하기(소통)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평협은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시노드 정신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으로 시노드 정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히 한국평협은 해마다 진행해오던 가톨릭대상 시상과 홍보활동 외에도 가경자 최양업(토마스) 신부의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 전개와 우리 성가 알리기 영상 공모를 통한 문화복음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존 활동, 아시아 교회 평신도협의회와 연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개막미사 중에는 그동안 평신도사도직을 위해 한국평협 산하 각 단체에서 봉사해오다 임기를 마친 이들을 위한 감사장도 전달했다. 미사를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제주평협 고용삼(베네딕토), 광주평협 신동열(리카르도), 마산평협 백균철(바오로),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유경희(테레사), 한국ME 방효봉(스테파노)·김연옥(테레사) 부부,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박영찬(요셉),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조상현(안드레아),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윤영수(스테파노) 등 임기를 마



친 전임 회장 및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올해부터 간소한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감사패에서 감사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

아울러 한국평협은 이날 제38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함께 열었다. 가톨릭대상 시상식 중에는 에이즈 편견 개선과 간호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아(스텔라·56)씨가 사랑·생명 부문 특별상을, 교정 사목 봉사자로 활동하며 무고한 재소자의 무죄를 입증한 박영희(켄마·72)씨가 정의·평화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올해 새롭게 추가된 선교·문화 부문에는 시골 공소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최요안(요한·65)씨가 특별상을 받았다.

가톨릭대상은 한국평협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복음적 활동과 인간 발전에 기여한 숨은 그리스도를 발굴해 시상해온 상이다. 올해는 심사 결과, 후보자 중 대상 적격자가 없어 특별상으로 시상됐다.

손희송 주교는 강론을 통해 “정의와 자비심이 균형을 이룬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지혜와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측은지심

과 자비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주교는 “자비심과 뛰어난 분별력을 지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새긴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며 “그런 지향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특별히 새로운 임무를 맡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한국평협 담당 조성풍 신부는 “올해 한국평협이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시복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분의 사목열정과 하느님께 대한 충성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임 회장단 구성

한국평협은 이날 정기총회 중 제24대 임원개선을 통해 서울평협 회장인 이병욱 회장을 제24대 한국평협 회장으로 선출하고, 제24대 임원진을 구성했다.

임원개선을 위한 회의를 위해 임시로 회장을 맡은 수원평협 정태경(마티아) 회장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2·23대 회장을 수행하신 손병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한국 교회 활성화와 각 교구와 소통하여 공감 리더십 발휘하실 분을 추천해달라.”며 임원개선을 진행했다.

제24대 부회장에는 서울평협 안재홍(베다) 부회장, 대구평단협 김문식(프란치스코) 회장, 광주평협 윤관식(미카엘) 회장, 수원평협 정태경



(마티아) 회장, 제주평협 양보현(시몬) 회장,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배미자(테레사) 회장, 한국ME 정규철(요한) · 이해경(수산나) 대표부부,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이영준(로렌조),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양지수(미카엘) 회장이 임명됐다.

### 전임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 인사

부족한 사람이 4년 전 성령의 베풀어 주고 평협 회장이 되어서 4년의 임기 동안 부족함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무탈히 마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임 회장을 든든한 이병욱 회장님께 넘겨서 대단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장님 임기 중에 회장님들과 함께 건강한 평협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바다를 거부하지 않는 강물처럼, 신앙인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제 영육간의 부족함을 재충전하고, 배움과 인생의 삼모작을 위해서 재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 회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신임 이병욱 요한 금구 회장 인사

주님의 뜻을 보다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회장직은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 평단협을 시노드정신으로 활성화시켜 교회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의 협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 속에서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서로 경청하며 식별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하느님 뜻에 맞게 겸허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출범

성슬기 글라라  
편집위원

지난 1월 18일 언론, 방송, 출판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가톨릭 언론인 3단체가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이하 협회)로 통합 출범했습니다.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 · 시그니스(SIGNIS)서울 3단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명동 대교구청에서 총회를 열고 협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대회장에는 이영준(로렌조) KBS PD, 수석부회장에는 유창엽(세르지오) 연합뉴스 기자가 임명됐습니다. 새로운 협회 출범을 맞아 그간의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가톨릭 언론인의 활동과 소명 등을 짚어봅니다.

### 가톨릭 언론인, 새로운 출발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이하 가언협)와 시그니스서울,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 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6개월 간 통합 논의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1월 18일 신문, 방송, 출판, 영화, 광고, 미디어교육, 소셜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언론인들의 새로운 통합 단체인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를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각 단체의 재정과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산하에

저널리즘위원회를 신설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복음적, 사도적 사명을 다하고 저널리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 활동을 할 때에는 '시그니스'를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출범식 당시 기존 가톨릭 언론인 3단체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먼저 "미디어 생태계는 디지털기술 발달과 뉴미디어 출현, 미디어 융합과 같은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미디어를 통한 가톨릭 복음화에 앞장서 온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시그니스서울,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는 3단체 회원 모두의 결의에 따라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로 통합하고자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사도직 봉사자로서 소명을 성찰하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날 지난 2년 간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을 맡아 3단체 통합을 이끌어온 고계연(메트로) 전 회장은 "55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가언협으로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다만 '저널리즘 위원회'를 통해

출범식



가톨릭 언론인의 사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시대의 마감은 또 다른 시대의 개막”이라고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가톨릭 언론인들의 통합 단체 출범으로 교회 내 언론 단체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한국 가톨릭 언론인들의 활동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톨릭 언론인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권고에 따라 ‘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미디어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듬해에는 각 교구 클럽들이 자발적으로 출범했고, 신문사와 방송사마다 교우회 등을 조직해 성장했으며 부문별 조직으로도 활동을 확대해왔습니다.

본격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는 2002년께 시작됐습니다. 2001년 전 세계 가톨릭 매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한 교황청 산하 시그니스가 출범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시그니스 코리아가 설립되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종합편성채널이 허가돼 미디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깊어졌습니다.

신임회장



### 가톨릭언론인3단체 통합 진행 경과

- ◆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를 출범하기 위한 통합논의 통합논의 태스크포스(TF)팀 위원은 가톨릭언론인협의회·시그니스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 등 3단체별 4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함.
- ◆ 지난 6개월 간 6차례 줌 회의와 대면회의 진행. 회의에서는 각 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견 해소에 주력함. 지난해 12월 27일 최종회의에서 회칙(안)에 합의함.
- ◆ 앞서 11월 10일 가언협 전임 회장단 대면회의에서 격론과 허심탄회한 토론. 이 자리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언론미디어 환경과 트렌드 변화를 감안해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로 가닥을 잡음. 다만 통합 후에도 저널리즘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에서 구현하자는 데 합의함.
- ◆ 12월 17일 3단체장, 21일 3단체장과 김창욱 가언협 상임고문 모여 새 회칙 논의함. 회칙은 심플하게 하고 구매받음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작성함. 조문의 문구를 놓고 고심하기도 했음.
- ◆ 가언협은 전국 사도직단체인 만큼 명칭과 회칙 변경은 대구·청주·춘천교구 가언협과 사전 논의와 합의 필요함. 주교회의 승인 등 절차도 남아 있어 간단치 않았음. 일단 서울대교구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함. 주교회의의 사회홍보위원회 관련해서는 향후 새 통합단체에서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 평신도 마스크사도직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마스크사도직의 필요성은 매스미디어 시대가 열리며 시작됐습니다. 특히 평신도 역할을 강조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 마스크사도직이 국제적으로는 물론 각 지역교회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언협 또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바탕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복음적, 사도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지요.

교회는 공의회 당시 TV와 라디오, 인쇄기, 영사기 등 현대의 다양한 ‘놀라운 기술’은 대중과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을 발표하고,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느님의 뜻에 거슬러 악용하면 커다란 악이 되므로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힙니다. 평신도 언론인들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올바르게 사용해 여러 사도직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창립선언문 낭독



“이 매체에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인류 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하느님 뜻에 완전히 부응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평신도들이 할 일이다.”(「놀라운 기술」 3항)

또 공의회 중에는 다양한 관련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1964년 교황청 ‘사회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신설됐으며, 관련 기관으로는 UNDA(국제가톨릭방송인협회, International Catholic Association for Radio and Television), OCIC(국제가톨릭영화·시청각인협회, International Catholic Organization for Cinema and Audiovisual), UCIP(국제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International Catholic Union of the Press)를 인준했습니다.

3단체 통합 이전의 시그니스코리아와 CJPA의 역사도 이맘때쯤 시작됩니다. 1970년 UNDA를 시작으로 한국 OCIC와 UCIP 등 세계 기구의 한국 조직을 갖춰 나가며, 분야별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도직을 펼쳐나갔습니다. 이어 2002년에는 UNDA와 OCIC가 통합해 방송, 영화, 영상,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 모임 ‘시그니스(SIGNIS)’로 출범하며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2010년 교황청이 국제평신도사도직단체 인준을 취소하며 한국 UCIP는 CJPA(Catholic Journalists and Publishers Association)으로 명칭을 바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가톨릭언론인으로서 활동 및 소명

한국에 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이 출범하면서 가톨릭 언론인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종교와 마스크’를 주제로 한 칼럼을 전국 주요 일간지에 기고하고,

라디오 방송 등에도 출연해 마스크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가톨릭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한 강연회를 열기도 했지요.

또 모자보건법 반대와 공명선거 실시, 인권 유린 반대 등에 큰 목소리를 냈고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한 시국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시로서는 꽤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1980년대 당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홍운(베드로) 전 가언협 회장은 가언협 50년사 「말씀과 함께」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은 ‘제도 언론’의 족쇄에 묶여 현실 참여에 관해 소극적이었다.”며 “남들은 성명서를 내고, 데모를 하고, 감옥에도 끌려가는데 너희들은 눈과 귀를 속이는 제도 언론의 하수인들이냐?”는 무언의 질타에 갈등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1984년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아 신문과 방송, 출판, 영화 등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IMF를 지나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가톨릭 언론인들은 굴곡

진 사회 흐름 안에서 그 소명을 실천하며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가톨릭 언론인 신앙학교’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민감한 주제를 선정해 가톨릭적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가톨릭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지요. 신앙학교 1기는 1999년 9월 1일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 6월 개최한 첫 가톨릭 포럼 주제는 ‘남북 화해 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제1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후 가톨릭포럼은 교회 안팎으로 대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그 주제들 또한 우리사회 주요 이슈와 시급한 과제들 그리고 그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왔지요. 가장 최근에 열린 제21회 가톨릭포럼 주제는 ‘한국 사회와 공정’으로 청년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핵심을 짚어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지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 우리는 새 영세자

표혜리 헬레나  
편집위원



찬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춥고 긴 겨울이지만 잘 보내고 계신지요? 평신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은 봄날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의 세례식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번 호에는 지면으로나마 복음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봄의 시작과 어울리는 새 영세자들의 설렘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나서자 주변에서 새로이 신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런 것일까 고민해보았지만 성당 단위로 연락을 드리는 데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새 영세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우를 찾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언니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조카들이 첫 영성체를 받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서초동본당에서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았

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사단 교육을 진행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비신자 교육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초동본당 식구들 단톡방에 확인했을 때는 주변에 새 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12월에는 한동안 미사도 같이 드릴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야외에서 성체분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카들이 입교하지 못한 데서 온 속상함을 헤아리고 있자니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방역 조치가 신앙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어 이제 주변을 넓게 탐문했습니다. 서초동본당 식구들을 넘어서 직장동료들, 대학동기들,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수 소문에도 새 영세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탐문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지나도 찾을 수가 없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궁금해 《가톨릭평화신문》을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20~34세 청년층 영세자는 6,058명에 불과했습니다.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전체 신자의 10% 아래로 떨어진 비율입니다. 15~19세, 35~39세까지 포함하여도 8,525명에 그쳤습니다. 2021년 숫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2020년보다 많았을 리는 없으니 주변

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가 펴낸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에 따르면 2020년 미사와 고해성사 등 성사 참여율과 신앙생활의 모든 지표는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자 증가율도 이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회의 정상적인 사목과 참여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새 신자 증가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았(0.1%)습니다. 군중교구마저도 신자 증가율이 감소했을 정도니 다른 교구 상황은 더욱 나빴을 것입니다.

모든 교구가 코로나19 여파로 공동체 미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새 신자 입교와 교리교육, 세례성사 등 모든 성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면과 직접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교회 성사 생활이 보건 위기로 어쩔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성사 참여율이 사상 유례없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통계를 낼 수 없어서 미사 참여율은 공식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신자 증가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새 영세자가 이렇게나 없을 수 있냐고 탄식하면서 밤마다 새로운 교우 한 명만 내려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릴 무렵, 드디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덕분에 여러 새 영세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김대식 한국평협 편집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 간의 마음고생 끝에 찾을 수 있었건만 하루에도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시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설문지를 전달하고, 항목마다 답을 써서 받는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준 덕분에 마치 생생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새 영세자들의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저의 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라파엘 형제님은 무려 올해 1월에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따끈따끈한 새 신자입니다. 교리문답은 손태진 바오로 신부님께 비대면 교육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가 끝날 무렵이나 퇴근 전에 교리 수업을 참석해야 했던 적이 있어서 고충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례식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첫영성체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였냐고 물어보니 앞으로의 행동에 책임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도 첫영성체 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엇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송라파엘 형제님도 올해 1월에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리문답은 6개월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이 젤뚜르다 수녀님께 배웠습니다. 배우는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나눔교리 봉사자님과 수녀님께 질문을 많이 하였다고 하네요. 특히 나눔교리 시간에 같은 예비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대부

모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교리학교 수녀님께 말씀드려 수녀님의 도움으로 모실 수 있었다고 하는 데서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세례식은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여서 매우 좋았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첫 영성체 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처음 모시는 예수님의 성체에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짜릿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았지만 그래도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성당에서도 자주 예비자 영세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  
114  
+  
루치오 형제님은 작년에 옥수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주 간 옥수동성당에서 유숙자 비리버 수녀님께 예비 신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세례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례식 당일에 첫영성체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루치오 형제님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릴리안 자매님 또한 작년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리 문답은 6개월 가량 수녀님께 받았는데 어려운 경험이었다고 대답해주었고 기도문도 아직 외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식과 첫영성체의 기억은 평화로웠다는 답변을 하여 저의 세례식 기억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대모님을 정할 때도 성당으로 이끌어준 지인분이 도와주어서 그나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타 자매님은 오는 3월에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을 예정인 예비신자입니다. 2월 현재 노현기 다니엘 신부님께 예비 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공부를 시작하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나눔을 더 깊게 하지 못하는 데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외우기 어려운 기도문으로 사도신경을 꼽아서, 언젠가 자매님이 열심히 외워서 미사 중 사도신경 합송에 참여하여 개인의 잔잔한 목소리와 큰 울림의 합송이 하나되는 경험을 해보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마르타 자매님은 천주교 쪽으로 아는 지인이 없어서 대모님을 모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도 교우가 전혀 없어서, 처음 수업을 신청하고 시작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입교 진행 과정 또한 복잡해지고,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집중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타 자매님이 생각하기를 옆에서 같이 이끌어주고 도와줄 가까운 신자분이 없었기에 과정 중에 크게 힘들었는데, 주변에 천주교 신자가 없는 상황에 있지만 천주교를 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는 잠재적 신자들을 위한 방법과 도움들을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하였습니다.

+  
115  
+  
미카엘 형제님도 명동성당에서 최근 2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힘든 일들의 연속이어서 아내와 상의 끝에 신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명동성당 세실리아 수녀님의 비대면 교리 교육을 들었고 조별 활동을 통한 조원들과의 성경말씀 나눔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세례식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져서 감회가 새로웠으며 특히 첫영성체를 모실 때의 그 감격스러움이란 눈물이 펄펄 날 정

도였고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친척 중에서 모셔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셉 형제는 2021년 9월에 명동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혼배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인데요. 명동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6개월가량 안젤라 수녀님께 교리문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수녀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다만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받는 동안 회사 일도 많이 바빠서 업무와 교리교육, 성경필사 등 과제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세례성사를 마치고 나니, 그 기억이 더욱 와닿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답해주었습니다. 혼배미사를 준비했던 만큼 대부분 또한 신부 측의 소개로 모실 수 있었고, 세례식은 배운 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여 정신없이 흘러갔다 했습니다. 첫영성체는 영성체를 받기 전에 품었던 궁금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 덕분에 무사히 예비신자 교리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혼배미사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예비신자 교리 교육의 내용은 엄격히 유지하더라도 처음에 예비신자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올해 2월에 명동성당에서 6개월 동안 세실리아 수녀님께 예비 신자 교육 후 세례를 받은 새 영세자입니다. 꼬박

꼬박 일요일 아침에 출석하는 일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는데 저도 신자로서 미사 출석 의무가 주는 무게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 공감어 있습니다. 첫영성체 때 영혼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외우기 어려운 기도문으로 사도신경을 떠올리는 것을 보고 많은 교우들이 비슷한 곳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싶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하루빨리 사도신경을 외워 미사 중이나 일과 중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기도를 바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메스 형제님은 2021년 작년 9월에 역시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헤르메스 형제님은 천주교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외부의 영향이나 권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은 6개월 간 비대면으로 이 안젤라 수녀님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형제님은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확실히 오가는 시간이 절약되어 수업시간만 확보할 수 있으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교리 선생님, 봉사자님, 교리 수업 동기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아쉬웠고,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스스로가 세례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주변에 신자가 없어서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성당을 통해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원고를 위해 많은 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본당과 성당에서 주일학교는 운영하지 않지만 예비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성당에서 다시 주

일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 끝나더라도 다시 사람들이 성당으로 찾아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미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고요하고 정숙했던 분위기, 교리학교에서 어려운 교리문답이 끝나고 예비신자들끼리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신나서 얘기하던 뒤풀이, 경조사를 같이 하면서 사람들끼리 더욱 가까워지고 다같이 기도문을 외워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던 소모임 등 예비신자나 새 영세자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것은 대면활동을 통한 공동체 주의 함양과 신앙심의 고취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모님을 모시는 데 친척이나 성당의 도움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견진성사를 받을 때 다른 이의 대부모가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서약했는데, 새 신자가 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들이 대부모 역할을 해줘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영세자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주는 위안이 특히 필요한 시대에서 실체를 접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교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당의 노력과 신부님, 수녀님의 희생이 모여 입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

데요. 제가 만난 총 9명의 새 영세자 중 7명이 명동성당에서 예비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명동성당은 어려운 시국에도 예비신자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교리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홀로 빛을 내는 큰 촛대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젊은 층에서 새 신자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리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청년층을 위해 접근방식과 운영시간 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 많이 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나 또는 접근이 어려워져 신자가 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새로운 교우들에게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어려움을 뚫고 영세자가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로써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이 넘는 등 바닥을 모르고 어려움이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한데 뜻을 모아 신앙을 더욱 단단히 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교우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칠까 합니다.

## 믿음을 전하는 사진가들

이용열 바오로  
가톨릭사진가회 회장



+찬미 예수님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 3~31 참조)

가톨릭사진회의 회원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모습들을 통하여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회원들은 출사를 떠나기 전 사진가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진가의 활동에 함께해주시기를 청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는 이렇게 40여 년의 가톨릭 교회 내 소소한 일부부터 굵직한 역사를 기록해 온 서울대교구에서 인준한 평신도 단체입니다.

**사진은 기록이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는 1981년 5월 30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명동 교육관에서 발족하여 현재까지 교회 관련 사진 자료 수집과 중요행사 기록, 봉사를 위해 쉬 없이 활동해 왔습니다.

40년이 넘는 동안 초대 오규환 회장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1년 발족하여 2년도 안 되어 제1회 가톨릭 사진전을 개최하여 신도들에게 사진을 통한 신앙의 메시지를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회 때에는 우리회의 고문으로 계시던 김수환 추기경님과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상-초기회원들의 사진  
하-제1회 가톨릭사진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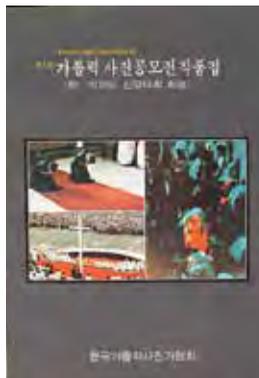
사진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기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가톨릭사진가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의 다양한 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1981년 창립한 해인 11월 제1회 가톨릭 사진 전국 공모전 및 전시회를 시작으로 2004년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하여 가톨릭 사진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전국사진 공모전(이후 사랑,

생명, 가정 전국공모전으로 명칭 변경)을 서울대교구 평신도협의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주관으로 2016년까지 13회에 걸쳐 개최하여 선정된 작품 전시를 해왔고, 이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사랑과 생명,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

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가톨릭 사진 전국공모전을 다시 개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을 적어 봅니다. 2009년에 출판한 서울대교구 성지 사진집은 2년 여에 걸쳐 서울 성지 곳곳을 다니며 담아낸 사진으로 지금의 성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담고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성지 사진집을 출판한다는 것은 현재를 사는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보시오! 휘광이 양반, 한 단 남은 이 묵주기도 마저 바치고, 우리 주님 뵈러 가면 안 되겠소? 금방 마치리다.” 주님을 뵈는다는 기쁜 마음으로 한 치의 두려움이나 떨림도 없었던 순교 성인들과 만나는 성지 사진 촬영을 통해서 신앙이 한 뼘 두 뼘 자라나는 가톨릭사진가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한국 천주교회 신앙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었던 공소 사진집은 무려 5년 여에 걸쳐 완성하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촬영한 공소는 가톨릭사진가회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주소

좌-작품집 표지, 우-제1회 사진공모전(2004년 12월)



상-공소집 표지와 오지의 공소 사진, 하 좌-사진 봉사활동, 하 우-피정 및 정기출사

하나 달랑 들고 공소를 찾아 떠났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 공소도 있었지만 굳게 닫힌 문, 깨어진 유리창, 그리고 공소 마당이었을 터는 밭으로 변해서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고 공소 건물 관리하는 분을 수소문해서 겨우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공소의 내부는 ‘차라리 보지 말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제단과 제대는 무너지고, 부서진 모습 그 사이로 뒹굴고 있었던 성모상의 처참한 모습에 ‘이것이 현재 나의 신앙이구나?’ 하는 아픔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터조차 없이 사라진 공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찾아 사진으로라도 기록할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한국 천주교사에 큰 의미가 된 작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의 사진 촬영 봉사를 하는 본회는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에 이르는 아시아 평신도 대회 전 과정을 촬영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였고, 취약계층의 영정사진 촬영봉사, 성바오로 가정 호스피스센터, 신내요양원 등 다수의 단체에 대한 사진 촬영 봉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사진가회는 끊임 없이 가톨릭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그러나 가톨릭사진가회는 물리적인 빛과 더불어 좀 더 특별한 빛을 찾아 카메라에 담으려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창세 1,3~4) 우리회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빛과 함께 삶의 원천이 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의 말씀에 따라 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의 출사는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순응하며 주님께서 그려 내는 자연을 카메라에 담고 때로는 마음의 심상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동명성당과 배론 성지의 빛



마음의 심상을 어떻게 담는다는 거지? 주님이 빚어낸 세상 만물을 그곳이 들여다 봅니다. 깊게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사진가의 기도에서 처럼 삶의 흔적들을,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은 피사체를, 렌즈를 통해 이미지로 담습니다. 이렇듯 렌즈 하나에 삶의 열정을 담는 가톨릭사진가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며, 사진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진문화를 보급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며 친목을 도모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사진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사진을 연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 출사와 월례회의를 진행하며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2003. 3. 23 개설)에서 공유하고, 사진을 통해서 회원들의 사진관과 가치관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가톨릭사진가회의 권장 입회 기준은 "가톨릭 신자로서 적어도 사진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치고, 사진 봉사나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우리의 여정

2020년, 2021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개별활동을 하며 사진과 각자 신앙의 성장을 꾀하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후보 표지에 묵상 사진을 게재하여 교회의 일치와 복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같고 닮은 노력들의 결실을 명동성당 지하 1층 1898갤러리에서 전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멈췄던 시간만큼 큰 걸음으로 멀리,

##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묵상 사진집

2022.1~2023.11

# 순례 기록

높이 뿔 준비의 시간들을 모아서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사진 묵상 집을 편찬하고자 합니다. “나도 천주학생이요. 나도 잡아가시오.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이요.” 13살 유대철 베드로, 젓먹이 아기를 두고 순교의 길을 가셨던 이성례…… 성인들의 숭고한 순교 정신을 담은 묵상집을 통해서 가톨릭사진가회의 신앙은 다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서울대교구 성지 순례길 사진 묵상집 편찬 작업은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시노드 정신과 맞닿을 것입니다. 제 16차 세계주교회의의 시노드 주제는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우리 가톨릭사진가회는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진 촬영을 하며 회원간 일치를 이루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종국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일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은총으로 서로 경청하고, 배우고, 돕는 참여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야고 2,14) 2022년부터 저희 가톨릭사진가회는 그동안 축적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사진 묵상집을 편찬하는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서 시노드 정신인 친교, 참여, 사명을 담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가톨릭사진가회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증거하신  
신앙의 현장과 발자취를 따라  
기도하며, 묵상의 기록을  
담고자 합니다.

## 사진가의 기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당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사진가들에게  
세상 모든 것 안에서  
당신 은총의 손길을 찾아내는  
아름답고 깊은 영혼의 눈길을 주소서.

빛을 창조하시어 어둠과 밝음을 주시고  
계절을 창조하시어 다양한 색깔을 주시고  
공간을 창조하시어 삶의 굴곡을 주시고  
숨결을 창조하시어 생명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어 생의 흔적들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을 삶의 그릇에 담으려는  
사진가들의 마음에 함께 하소서

사진가의 노력으로 표현된  
세상의 아름다움과 슬픔, 고통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느님 손길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진가들에게는 생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당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키워 주소서.

지나간 삶의 흔적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으로 행동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희망의 꿈을 꾸는  
사진가들의 움직임에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내 안의 평화를 위하여

이종섭  
목사, 시인, 문학평론가



жат나무 숲을 산책하는 아침입니다. 눈부시면서도 신비로운 햇살이 비칩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스며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을수록 가벼워지는 몸과 마음입니다. 나도 한 그루 나무가 되는 것일까요. 발을 딛고 선 땅에서 올라온 수액이 뼈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퍼져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에서 투명한 가지들이 공중으로 뻗어 푸른 잎사귀들을 틉읍니다. 참으로 평화롭기 그지없는 숲속 풍경입니다.

걸다가 쉬다가 하면서 산책을 하는 동안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니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옹이가 보입니다. 한번 눈에 띈 옹이는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보이고, 옹이를 맞닥뜨린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변의 잣나무들을 살펴보니 옹이가 없는 멀쩡한 잣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서너 개씩의 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옹이들을 보는 순간 그윽하게 깃들었던 평화의 감정이 흔들려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애써 평화의 마음을 붙잡아두면서 그 옹이들을 살펴보니 가지를 잘라낸 단면마다 찢든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갖 생긴 상처에서는 맑고 투명한 이슬방울

처럼 흘러내리고, 오래된 상처에서는 검푸른 피눈물처럼 고약하게 쏟아집니다. 어떤 나무는 그 피눈물이 깨끗하게 마르고 나서 어여쁘게 만들어진 옹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나무 안에 상처가 깊어가는 옹이가 있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옹이가 있기도 합니다. 잣나무 숲은 옹이를 생산하는 자연의 공방이고 잣나무는 옹이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옹이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다양한 상처들을 떠올립니다.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평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해주었던 상처들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길 때마다 아파하고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한 그루 두 그루 나무가 되어 평화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나무들만 보이지만 숲에 들어서면 기둥에 난 상처와 눈물과 옹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숲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 숲이 보여 정말 다행이지만 가지들이 보여주는 숲속에는 그 숲의 평화를 키우거나 지키기 위한 상처와 옹이가 무수히도 많을 것입니다.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가 나와 내 마음과 심장을 정결하게 하듯이, 저 멀리 보이는 내 과거의 숲에서도 더욱 진한 피톤치드가 나와 나의 평화를 새롭게 숨 쉬게 합니다. 그때 나를 몹시도 힘들게 했던 상처에서 이렇게 고요한 평화의 향기가 납니다.

내 생각이나 습관들이 타인과 부딪혀 하나둘씩 꺾이거나 잘려나갈 때마다 나는 소중한 평화가 사라져버려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평화 없는 삶이 견디기 힘들어 속으로 끄끙대며 지내야 했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두 번 경험하면, 아니 어느 정도 경험하면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했건만 나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서로서로 평화를 깨뜨리는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의 숲을 다시 산책하며 나 자신의 평화를 살펴보는 잣나무 숲속입니다. 어렵פות하게 바라볼수록 치유가 되기는커녕 아무도 몰래 꼭꼭 숨겨놓은 아픔이 덧나고 말지만, 뚜렷하게 바라보면 볼수록 이해와 터득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유익과 성숙을 평화롭게 얻을 수 있는 법을 지순하게 깨닫습니다. 잣나무 숲에서 옹이를 발견한 아침에 평생의 유익이 될 평화의 목상이 가슴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옹이만 남기고 잘려나간 가지들이 무척 아깝고 아팠을 것입니다. 옹이가 클수록 그 허탈함도 크고 깊어 먹먹한 가슴으로 허공만 바라봐야 했던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옹이를 남긴 채 사라져버린 가지들은 나뭇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가지들이어서, 낮에 찍혀 말려졌다가 아궁이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안타깝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꼈던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릴 때의 기분도 마찬가지여서 평화를 상실해버린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옹이가 흘렸던 눈물은 나무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같이 영롱한 눈물을 흘렸으나 가면 갈수록 시켜면 구정물을 흘려 나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고 그 나무를 붙잡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저렇게 고통스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도 전에 옹이의 거친 흔적들을 먼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옹이를 껴안고 우는 내 손과 옷에 언제 아물지도 모르는 상처의 진액이 엉겨 붙어 안 그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처를 더욱 힘들게 했었습니다. 평화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의 불안과 아픔이 주는 어두움과 흔들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옹이로 인한 나무의 손해와 상처도 많지만 옹이가 주는 이득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떠올려봅니다. 작은 그릇일수록 자신의 손실 그 자체만 생각하나 큰 그릇일수록 손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과를 바라보는 법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늘려 평화의 숨결과 햇살을 담아보기로 다짐합니다. 그 마음에 잘 마른 옹이의 표정을 담아 고운 손으로 다독다독 쓰다듬으며 그 평화의 또 다른 외피의 질감을 느껴봅니다.

옹이가 있어야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지치기해서 옹이를 만들지 않으면 잣나무 숲에 가지들이 뻑뻑해서 일도 산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옹이가 있어야 숲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옹이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사이로 사람이 산책하고 오솔길이 생깁니다. 나무가 만든 평화의 공간입니다. 옹이를 만들어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잣나무 숲속에 난 오솔길을 걸으며 푸른 산책을 마칠 때쯤, 상처와 평화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나도 상처를 통해 자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평화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 상처와 평화의 자각과 배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작은 손길이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옹이들은 내가 잘 자라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다 내 뺨쪽

한 가지에 찢려 신음하거나 내 선부른 가지에 걸려 넘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기 좋아하고, 나를 바라보다 내 몸에 새겨진 옹이를 보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산책하면서 내가 뿜어내는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순수한 평화입니다.

잣나무 숲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개를 돌려 잣나무 숲을 바라보니 푸드득 날아가는 산비둘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잣나무 향이 평화롭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평화의 햇살이 더욱 환해집니다. 마음 가득 평화가 고입니다.



## 평협은 '지금'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제55회 정기총회



한국평협(회장 이병욱 요한금구)은 2022년 2월 5일 토요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2022년도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평협 새 회장으로는 서울평협 이병욱 요한 금구 회장이 선출되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쇄신하고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노드 정신으로 서로가 기도 속에서 겸손하게 식별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각 교구평협, 회원단체 여러분과 함께 해나간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라면서 소감을 전했다. 한국평협 회장직을 마치게 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23대 회장은 “영육 간의 부족함을 재충전하고 앞으로도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4년 간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평협은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총 체험의 해’를 새로운 활동 지표로 삼아 경청, 식별, 성찰, 소통을 실천하는 2022년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특별히 기도 운동을 시작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교구평협 · 회원단체 소식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제52회 정기총회



서울평협(회장 이병욱 요한금구)은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2022년도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는 강론에서 “총회 시작을 미사로 진행한 이유는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활동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봉사가 교회에 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청했으면 한다.”라면서 “하느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신다. 이 부르심에 성모님처럼 응답하고 모자란 부분은 하느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의탁해야 한다.”고 평신도 봉사자로서 임해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제52차 정기총회



대전평단협(회장 맹동술 시몬)은 2022년 1월 15일(주일)에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시노달리타스’ 강의(시노드 사목연구소장 박상병 신부)와 ‘시노달리타스 여정에서의 공동식별의 의미’ 강의(현재 우 박사)를 들으며 대전교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인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 시간에는 2021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을 의결했으며, 교구장 서리 주교님(김종수 아우구스티노)의 파견미사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85개 본당 89명, 15개 사도직단체 19명, 평단협 상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폐막 미사**

11월 27일(토) 10시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인천평협(회장 황규철 베드로) 주관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폐막 미사'를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신앙과 삶에 감사할 수 있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마음의 문을 열면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임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로서 청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정신철 주교는 교구 도보 순례 완주자 191명을 대표한 교우들에게 기념 증서와 묵주를 수여하며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변화의 여정 속에서 완주한 것을 축복한다."고 전하였다.

### ❖ **세계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및 제23대 평협 임명장 수여식**



1월 3일(월)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임원 그리고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세계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가 거행되었다. 미사 중 교구장님의 제23대 교구평협 임명장 수여식은 임원 23명 대표로 회장 황규철 베드로께서 받았다.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이날 강론에서 "기도하는 가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기도를 통하여 성모님께 그리고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고 적극적으로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및 시상식**



수원평협(회장 정태경 마티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을 맞아 '기쁜 소식-청년 김대건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대상 1점, 일반부 40점, 청소년부 11점을 선정하여 12월 23일(목)~30일(목)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에서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8일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성지도신부 집전으로 기념미사와 시상식을 가졌다. 수원교구는 이 행사를 통해 교구 내 성지순례를 하며 성 김대건 신부의 숨결을 느끼고 순교 성인들의 굳은 신앙을 본받으며, 아울러 사진 예술을 통한 복음 전파와 소통에 기여했다고 본다.

### ❖ **2022 평협 및 사도직단체 사목방문**



수원평협은 2월 26일 교구청에서 2022 평협 및 사도직단체 사목방문을 실시하였다. 교구 인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사목방문은 제 단체들이 지난 한 해 실시했던 활동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확인, 점검하는 자리로 평협을 비롯한 18개 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비대면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2021년 '자선의 해'-예수님께 한 끼 식사 대접하기 및 백신 나눔 운동**



원주평협(회장 장승기 베드로)에서는 2021년 교구장 사목교서 '자선의 해'를 지내며, 2021년 2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수님께 한 끼 식사 대접하기 및 백신 나눔 운동"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교구 내 취약 계층을 위하여, 모든 교구 신자들이 참여하는, 한 끼 식사비 기부 자선 챌린지를 시행하여, 따뜻한 신앙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총 260,066,121원을 모금하였으며 백신 나눔 2회 255,000,000원, 원주사회 복지재단 시설 9개소에 3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교구 공소 순례하기**

원주평협에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교구의 36개 공소 순례

하기를 추진하여, 총 358명이 참여하였다. 규모도 작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신앙심을 잃지 않고 공소를 가꾸며, 모범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며 나태해진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공소를 순례하면서, 조선 8도 중 5개 도에 산재한 127개의 교우촌을, 해마다 7천리씩 걸어 다니시며, 열성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셨던, 길 위의 사도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하였다.

❖ 제53차 정기총회



2022년 1월 15일, 가톨릭센터 마리아홀에서, 본당 사도회장, 평협 임원, 제단체장 등 94명 참석하여 제53차 평협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과 감사보고, 2022년 사업계획을 공유하였으며, 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미사와, 34대 원주교구 평협 신임 임원들에 대한 파견장 수여로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시노드 경청모임 진행을 위한 동반자 연수

2022년 3월 5일 교구평협 차원의 경청모임 진행을 위한 동반자 연수가 교구 신앙교육원에서 교구 소속 사도직 단체장과 지구 대표 등 40여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교구 평신도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준비된 연수는 3-4월 사도직 단체별 경청모임을 거쳐 5월 경청모임 기록지 제출과 교구 경청모임을 통해 취합될 예정이다.

❖ 제4차 정기총회



2022년 3월 19일 교구 한마음수련원에서 개최한 제4차 정기총회를 통해 새 상임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고진철 라우렌시오, 부회장: 민태용 즈가리아/정영화 요셉 감사: 안창영 가브리엘/최승묵 스테파노) 아울러 지난 19년 6월 29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상임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전임 위원들(회장: 김용무 미카엘, 부회장: 두현자 울리

안나, 감사: 유충근 그레고리오, 정종억 토마스)께 감사를 전했다.

❖ 대의원 연수

2022년 3월 19일 총회 이후 진행된 대의원 연수에서는 "팬데믹 2년이 교회에 던진 과제"를 주제로 '가톨릭 문화와 신학 연구소장' 정희완 신부의 강의와 현재 진행중인 본당 경청모임을 점검하고, 5월에 개최될 교구 경청모임에 대한 안내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임원 도보순례

부산평협(회장 최재석 요한)은 2022년 1월 29일(토) 오전 9시 삼랑진역에서 성모동굴성당까지 도보순례를 했다. 시복시성을 위한 임원들만의 순례지만 1시간 30분에 걸쳐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미사까지 드리는 도보순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진다.

❖ 부산평협 제47차 정기총회



지난 2월 6일(일) 오후 2시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부산평협 제47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로 나뉘어 행사는 진행되었다. 이어서 이장환 신부의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 회복'(우리의 믿음을 '성체'와 '말씀' 위에 굳건히 정초합시다.)이라는 강의, 파견미사 및 선교상, 교리교사상, 사랑봉사상의 시상식이 있었다.

❖ 부산평협 임명장 수여식

지난 2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부산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회장, 감사 임명장 및 고문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부회장, 분과장, 위원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는 환영인사를 통해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면서 미사참례를 강조하였고, 맡은 일에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52차 정기총회



지난 1월 22일(토)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75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시작기도와 더불어 배기현 콘스탄틴 교구장 주교님의 시노드(synod)의 참 의미와 배경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담당사제, 본당회장단, 교구단체장, 평협회장단 소개와 함께 지구별, 단체별 순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교구평협 제27대 임원으로 회장 최종록 대건안드레아, 남성부회장 박완규 토마스 아퀴나스, 여성부회장 강인성 이사벨라, 단체 부회장 곽세욱 레미시오, 감사 김원태 마태오, 박삼생 다마소가 선출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제13회 복음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선교대상에는 칠원본당 박상섭 요셉, 회두대상 개인 최우수상에는 칠원본당 이종연 레지나, 단체 최우수상에는 창원 사파동 본당 은총의 샘 Pr.에서 수상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그리스도인에게 시상되는 봉사대상은 사파동 본당 박원규 아우구스티노씨가 수상하였다. 지난해 대림시기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시상에는 1등 칠원 본당, 2등 명서동 본당, 3등 옥봉동 본당, 특별상에는 생림선교, 영산 본당이 수상하였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평협(제51차), 여성위원회(제18차) 정기총회



2022년 1월 22일(토)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평협(제51차)과 여성위원회(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감사보고와 2022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또한 제37대 임원 선출에서는 회장으로 윤관식 미카엘, 감사 박채홍 가브리엘과 홍조영 베드로가 선출되어 새로운 소임을 맡았다. 여성위원회 제10대 임원 선출에서는 정은희 글라라 위원장이 연임되었고, 감사 이경임 베로니카가 선출되었다.

#### ❖ 광주평협 창립 50주년기념 감사미사

광주평협은 2022년 2월 26(토) 교구청 성당에서 본당 사목협의회장, 여성부회장과 교구단위 제 단체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의 길~ 함께 걷는 광주평협!'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50주

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1편 평협의 역사, 2편 평신도사도직 단체의 조직과 활동, 3편 141개 본당의 활동, 4편 교구 37개 제 단체의 활동, 5편 평신도사도직 발자취, 6편 기타 자료를 담아 『광주평협 50년사』를 발간하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봉정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어서 지난 50년을 발판삼아 희망찬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다짐'을 평협 임원들이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 ❖ 사목협의회회장 및 여성부회장 직무교육

광주평협은 각 본당 사목협의회장과 여성부회장을 대상으로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차는 11월 27일(토), 2차는 12월 4일(토) 2회에 걸쳐 82개 본당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사목협의회장과 여성부회장의 역할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사목협의회회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 특강1. Synodalitas, 본당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재화 안셀모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특강2. Synodalitas,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옥현진 시몬 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전주교구 주교님과 함께하는 시노달리타스 행사

전주평단협(회장 한병성 세례자요한)에서는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치명자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교구 내 본당 사목회장, 평단협 임원, 제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교님과 함께하는 시노달리타스」를 개최하고 조별 대화를 거친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1차적으로 각 본당에서 토론을 통해 취합된 자료들을 2차적으로 교구 성직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구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경과과 대화를 통해 영성적 대화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방문 및 간담회



지난해 11월 14일(주일)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다. 제주평협(회장 양보현 시몬)

## 교구평협 · 회원단체 소식

은 이날 회장단, 사회복지위원장과 문창우 비오 주교님과 함께 조손가족 집과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선물을 전달하고 난 후 사회복지시설 한 곳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특별히 탈북민이 경영하는 식당(북한식 한식)에서 탈북민 관련 하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교님은 오늘 같은 행사는 하루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탈북민을 위한 방법을 교구차원에서 찾아보도록 말씀하셨다.

### ❖ 지구별 본당 대항 복음쓰기 시상식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대림시기에 제주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본당 소공동체가 함께하는 제11차 지구별 본당 대항 복음쓰기'에 적극 참여한 본당, 교우들에게 지난 1월 29일에 시상하였다. 특별히 이번 복음쓰기는 신자 수 대비 참여자 총점수를 지구별로 비교하여 9개 본당을 선정하였으며, 특별히 가장 나이 많은 신자와 어린 신자들, 3세대가 참여한 가족, 전국 1위를 한 신자에게도 복음상, 사랑상 등으로 문창우(비오) 주교님께서 직접 상장과 상금을 주시고, 축하의 말씀과 함께 복음적 삶을 살도록 강조해 주셨다.

### ❖ 2022년도 정기총회



제주평협은 2월 26일(토) 가톨릭회관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참석 인원을 축소하여 각 본당 총회장 1명과 각 단체장, 상임위원 등 60여 명이 함께 미사로 시작하고, 보고사항에 이어 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총회 때 만난 이후 새 상임위원과 1, 2월에 새로 임명된 총회장들이 많아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형식적인 총회를 탈피하는 심도 있는 심의와 획책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고 제주교구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는 기대감을 가진 회원들이 많았다.

## 월드와이드매리지엔카운터 한국협의회

### ❖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치명순교길 걷기

WWME 한국협의회(대표팀 정규철·이혜경부부, 이하 한국ME)는 지난 2021년 11월 21일 인천 교구 가정동성당에서 25대 출범미사 및 발대식을 가졌다.

## 교구평협 · 회원단체 소식

### ❖ 2022년 상반기 정기총회 개최



한국ME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원교구 성라자로마를 아론의 집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교구 대표팀의 사정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다면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전국 15개 교구 대표와 한국ME 대표팀을 비롯한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각 교구별 활동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한국ME 45주년 행사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다.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 2021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회원피정



이날 행사는 이석재 토마스 아퀴나스 대표 신부 주례로 분과별 대표 사제와 상임위원, 분과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감사미사로 봉헌되었고, 이로써 25대 한국ME의 출범을 알렸다. 한국ME 대표팀 이하 상임위원 및 분과위원들은 "위기에든 멈출 수 없는 사랑, 코로나19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 WWME의 비전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 ❖ 새 발표팀 모임 개최

한국ME는 1월 16일 수원 교구 성라자로마를 아론의 집에서 전국 새 발표팀 부부와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한국ME는 매년 발표부부로 소명을 받고 주말발표 봉사를 시작한 부부들과의 모임을 실시하는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 교구 새 발표팀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발표팀으로서 자제와 영성을 위한 교육 및 그룹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 교구평협 · 회원단체 소식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회장 윤대인)는 협의회 산하 7개교구 총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금)~6일(토)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2021년 회원피정을 실시하였다. 피정은 개막미사와 친교의 시간, 새미은총의 동산 순례로 이어졌으며, 미사 중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신축교안'을 주제로 말씀하시며 나눔의 실천과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 은총인 향주삼덕 안에 머물기를 당부하였다.

### ❖ 2022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정기총회

2월 25일(금)부터 1박 2일 간 서울대교구 성 앙베르센터에서 예정되었던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회장 윤대인, 담당사제 김한석 신부) 정기총회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되었다. 협의회 산하 8개 교구 회장단 등 총 47명(위임 16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021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감사보고에 이어 임기만료된 윤대인 안드레아 회장을 2년 임기 차기 회장으로 재선출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 ❖ 레지오 마리아 창설 100주년 기념 미사 및 우수평의회 시상



광주대교구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단장 하청일)는 8일 목포 산정동 준대성전에서 레지오 마리아 창설 10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평신도로서 한국 교회의 건인차 역할을 하는 각 뽀레시디움의 협조단원과 활동단원 여러분과 꾸리아, 꼬미시움, 레지아, 세나투스 임원진 여러분에게 중재자의 모후 세나투스를 두고 있는 교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기념미사에는 우수평의회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하청일(안젤로) 세나투스 단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모든 구성원들이 기념미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성모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시려는 성모님의 구원사업에 더욱 힘쓰겠으며 내년 한국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70주년 준비도 열정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구평협 · 회원단체 소식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 제44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71회 전국이사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박현숙 안나그라시아 수녀)는 2022년 2월 12일 제71회 전국이사회, 제44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총회는 <지구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조경자(마리아가르멜) 수녀의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이란 특강이 진행되었다. 올해 총회에서는 회장 박현숙 수녀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중앙이사회 성지순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중앙이사회 성지순례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용산에 있는 새남터 성지와 당고개 순교성지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종식과 가톨릭간호사협회의 발전, 우리 자신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순교자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하였다.

## 한국가톨릭학교장회

### ❖ 2022년 CBCK교육위원회 세미나 및 제63차 한국가톨릭학교장회 총회 개최

2022년 CBCK 교육위원회 세미나 및 제63차 한국가톨릭학교장회 총회가 청주교구 매괴중 · 고등학교와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2022년 5월 30일(월)부터 6월 1일(수)까지 2박 3일에 걸쳐 '공동체로서의 학교 회복'이란 주제로 열렸다. 전국 79개 학교의 학교장이 함께 모여 CBCK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와 한국가톨릭학교의 당면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계성초등학교 양지영 에밀리아나 수녀와 매괴중 · 고등학교를 이수한 시릴로 신부의 학교 현장의 공동체 발표와 가톨릭대학교 교수 윤만근 모이세 신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 회복'을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형제애가 생동하는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모둠토론과 발표를 진행했다.

## 명동성당 vs 남양성모성지성당

임진우 | 건축가, 화가, 칼럼니스트

### 도시와 건축, 그리고 성당

좋은 도시일수록 좋은 건축이 많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감동을 주는 종교건축물 중에 명동성당과 남양성모성지성당이 있다. 명동성당은 1898년에, 남양 성모 성지 성당은 2020년에 완공되었으니 두 건축물은 120여 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 명동성당은 도심지에 서있고 남양성모성지성당은 한적한 지방소도시의 전원 속에 위치한다. 두 성당 모두 붉은

벽돌이 외장재료인 공통점이 있지만 과연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성당과 최근에 지어진 현대적 감각의 성당은 각각 어떤 특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 두 건축물에 담긴 시대정신과 장소성, 건축가로서 볼 때 신성한 종교건축으로서 공간의 구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비



하느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려는 열망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곳에서 머물 수 없다



교해보는 일은 재미있기도 의미가 있기도 하다.

### 도심 속에 위치한 명동성당

건축가들은 아름다운 건축에서 영감을 얻고 감동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명동성당은 역사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완벽한 건축물이다. 외벽 첨두아치의 반복과 하늘로 치솟은 뾰족한 종탑은 신을 향한 염원을 형상화한 고딕건축 양식의 특징이다. 명동성당뿐만 아니라 사도회관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도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 모두 외장재료로 벽돌이 사용되어 공동체적인 군집미가 느껴진다. 벽돌공이 한 장 한 장 쌓은 벽돌은 외장재료 이전에 건축물에 담긴 애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에 대한 경외감이요 정성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나태주, 「꽃꽃」)는 시구처럼 건축물도 자세히 볼수록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수 있다.

명동성당은 프랑스인 코스트 신부가 설계하여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고딕양식의 건축물로 명동의 랜드마크다. 수직적인 종탑의 조형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경건함을 상징하고 있다. 당시에 대성당의 건립은 그 이전 조선 후기 100여 년 동안 모질도록 박

해를 받아왔던 한국 천주교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다. 성당 건립을 계기로 한적했던 명동의 경관이 바뀌고 단번에 수직적인 종탑은 가톨릭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뾰족지붕의 이미지로 각인된 고딕양식의 종현성당은 명동성당으로 개명 후 천주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자유와 민주의 성지로 여겨진다.

대체로 종탑이 있는 성당의 전면부분은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다. 주출입구 쪽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진화보집에서 보아왔던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단 뒤쪽의 외부공간은 전면과는 분위기가 다른 조형의 독특성을 느낄 수 있다. 전면이 수직적이고 남성처럼 강한 조형언어라면 후면부는 둥근 외관과 높고 낮은 매스의 중첩, 아기자기한 작은 원형 창문의 구성으로 부드러운 엄마의 품속 같은 아늑함이 느껴진다.





내부공간에 들어서면 엄숙함, 경건함, 거룩함의 분위기에 압도된다. 수직적인 모티브의 고딕 양식은 실내에도 첨두아치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회중석의 배치는 신랑(nave)과 측랑(aisle), 그리고 제단부의 반원형 애프스(apse) 등, 전형적인 바실리카 형식에 충실하다. 주일 미사시간이 아닌 평일에도 기다란 목재의자에는 신

도들이 드문드문 앉아있다. 조용히 읊조리는 그들의 기도가 성스러운 공간에 이어지고 어떤 이는 고해성사 순서를 기다린다. 분주한 도심 속이지만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이제 성당을 오르는 계단 주변에는 크고 작은 광장과 숲길이 조성되어 오늘도 시민들은 작은 쉼터에서 여유를 가진다. 방문자들에게 산책과 만남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도심 한복판에서도 개방된 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다. 도심 속이지만 걷기에 좋은 계절이라면 한 번쯤 쉬어가기에도 좋은 장소다.

### 전원 속에 위치한 남양성모성지성당

명동성당이 서울의 심장부, 복잡한 명동의 한복판에 있다면 남양성모성지성당은 한적한 전원 속에 위치하고 있다. 드넓은 자연

속에 조성된 건축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남양성모성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는데, 병인년(1866년)에 박해를 받고 처형된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이다. 이곳은 다른 순교지와는 달리 무명 순교자들의 터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가, 1983년부터 성역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전국 명산지에 뿌리내린 오랜 전통사찰처럼 성지의 진입과정은 나무숲과 새소리가 어우러진다. 더구나 성지의 게이트 전면 주차장으로부터 기념성당까지의 거리가 제법 있어서 잘 조성된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을 수 있다. 중간에 촛불이 가득한 봉헌실에 잠시 들르면 세속의 먼지를 떨어내는 묵상의 장소에 걸맞게 성스럽고 경건한 분위기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고딕이나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 가톨릭 성당의 전통적인 종교 건축 구법에 구속되지 않고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풀어낸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한만원의 수작이다(2020년 봉헌). 성당건축의 상징성과 기품은 유지하되 형식과 전통의 틀에서 탈피하여 시대 정신에 맞는 디자인으로 효율과 실용을 우선하였음이 보인다. 진입 게이트에서 멀찌감치 보면 두 개의 둥근 탑이 기념탑처럼 산 위에 우뚝 서있다. 붉은 벽돌로 건축된 둥근 탑의 시각적 효과는 계곡을 오르며 건물에 다가갈수록 그 웅장함이 드러난다. 탑은 머리 부분이 사선으로 절개되어 천창의 기능을 가지고 강대상 전면 에 빛 우물의 효과로 자연광을 퍼 나른다. 최종 도착 레벨인 본당의 클라이맥스는 실내음향과 자연채광이 충분하도록 고려된 미사공간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에 최적화되어 있다. 둥근 천창

에서 주님의 은혜처럼 쏟아져 내리는 자연광은 루버로 확산되어 밝고 현대적인 미사공간을 더욱 거룩하고 성스럽게 연출한다. 미사 후 야외동산 쪽으로 동선을 확장하면 열주로 이루어진 쉼터와 계단식 옥외공간이 성당을 위요하는데 신도들의 교제를 한층 더하는 코이노니아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산의 능선이라 이곳에서 비로소 하늘과 마주한다.

남양성모성지는 기념성당 외에도 성모상을 비롯한 여럿 성인들의 조형과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의 길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순례를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아무 곳이나 걸터앉아 시선을 뺏으면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진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에 지쳐있는 방문객들이라면 신선한 공기와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마저 시공을 초월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남양성모성지는 일에 쫓기고 루틴한 삶을 재충전하기에는 아주 좋은 답사지로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장소로 이곳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코로나 시국이라 외출과 여행,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고립과 외로움, 마스크로 인한 갑갑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의심과 혐오 같은,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주변에 가득하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건축가로서, 또 평신도로서 생각과 언행이 사랑의 마음으로 정제하여 사회 약자를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겠다.

‘Without Love, We have Nothing’이라는 성경말씀처럼…….



## 성녀 체칠리아와 음악가

전영태 | 중앙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초기 교회 공통체의 교회음악은 사도 바오로의 선교 중심지였던 안티오키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에베소서 5: 19〉라고 가정생활 속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방편으로 음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음악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음악의 중요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콜로새서 3:16〉에서 다시 확인된다.

초대 교회음악은 악기 반주가 따르지 않는 성악만의 예배음악으로 연주되었다. 그 까닭은 악기가 사치스럽고 전통적으로 이교도의 제사의식에 사용되었으며,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할 하느님의 말씀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악기 사용이 없는 성악만의 예배음악 전통은 오늘날까지 동방교회에서 지켜진다.

가톨릭의 음악의 주보 성인인 성녀 체칠리아(?~230년)가 이교도

남편과의 결혼식에서 악기로 연주되는 결혼식 음악을 들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떠올려 결혼식 음악을 부정했던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혼 전부터 동정을 지키려고 맹세했던 성녀 체칠리아가 화려한 결혼식 음악에 감흥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다. 체칠리아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동정 서원을 청하는 기도에 몰입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성녀 체칠리아의 일화는 그녀가 결혼식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오해되기 시작했다. 라파엘로의 ‘성녀 체칠리아와 성인들’(1514)에서 체칠리아는 오르간을 연주하며 종교적 황홀경에 젖어 하늘을 우러러 노래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녀의 발밑에는 비올라를 비롯한 각종 악기들이 깔려있다. 그녀가 음악의 주보 성인으로 섬겨지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 16세기부터였다.

4세기 이후부터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강화로 지역적으로 여러 종류의 전례음악이 있었다. 로마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레고리 1세(590~604)는 다양한 전례음악을 정리하고 음악의 규정을 제정했는데 그 결과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도 불리워지는 단성부의 라틴어 전례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가 성립된다, 다성음악은 9세기경부터 출현하여 오르간 반주음악이 교회에서 연주되었지만, 로마의 시스티나 교회만이 오르간 없는 무반주 음악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러한 음악사의 추이로 보아 성녀 체칠리아가 음악의 주보 성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민중들의 예술, 특히 음악에 대한 열정적 수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해에서 비

못되었을 수도 있으나 성녀 체칠리아와 음악의 강력한 연관은 그 이후에 더욱 강화되어 그녀의 이름을 딴 예술학교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설립된다.(1565)

이 음악원 출신의 대표적 음악가는 조수미,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엔니오 모리코네 등이 있다. 지휘자 정명훈은 한때 산타 체칠리아 관현악단을 이끌었다. 이들 음악가 중 우선 주목할 인물은 엔니오 모리코네(1928~2020)이다.

모리코네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두 번 졸업했다. 1946년 트럼펫 전공으로 졸업한 후 작곡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결심해서 작곡과에 재입학해서 1954년 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작곡과 연주 활동을 이어간 그는 회고를 통해 자신 음악의 중심 모티브는 신앙심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받은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밝혔다. 또한 일생을 통해서 두 번 울었는데 하나는 영화 <미션>의 음악을 작곡할 때였고, 둘은 교황을 알현했을 때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신앙심이 돈독한 모리코네가 마카로니 웨스턴의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고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의 걸작을 산출했다는 것은 얼마간 아이러니한 느낌을 갖게 한다. 무참한 살육이 반복되는 영화에서 그의 음악은 황량하고 거칠고 쓸쓸한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호소하는 애절함이 점철되어 있다. 다성부와 단성부의 교차에서 그레고리안 찬트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인간의 목소리가 최고의 음악재료라고 생각한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에서 멜로디 라인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

고, 분노의 추적자> <헤이트풀8>에서도 이러한 그의 음악의 특징은 이어진다. 모리코네에게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을 받게 한 <헤이트풀8>에서 저음 목관악기인 바순을 인간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등장시켜 영화의 어두침침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묘사한 것도 굳이 따지자면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신앙심의 응축이 가장 잘 나타난 영화음악은 <미션>의 OST이다. <가브리엘의 테마>의 아련한 멜로디는 관악기 오보에로 성악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 18세기 예수회 선교사와 원주민 간의 갈등과 화합의 역사를 다룬 이 영화에서 오보에의 청량한 음은 원주민들의 심금을 울려 선교사를 포용하게 한다. 이 음악은 뮤지컬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의 요청으로 가사를 붙여 <넬라 판타지아>의 성악곡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또한 합창곡 <지상에서도 천국에서와 같이>는 토속적인 봉고 리듬과 클래식 화성이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두가지 선율의 테마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연주된다. 20세기판 그레고리오 성가가 발현하는 감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모리코네는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신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가 작곡한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를 노래한 안드레아 보첼리 음악에서도 <넬라 판타지아>의 신앙심의 발로를 느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그는 죽는 순간까지 경건한 신앙심을 견지했다. 그에게 있지도 않은 “산타 체칠리아 영화 음악상”이 수여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닐 것이다. 그는 결코 평범한 대중음악가가 아니었다.

프랑스의 작곡가 구노(1818~1893)는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1855)를 작곡했다. 생-상은 이 곡이 “19세기 후반 프랑스 음악의 대표작”이라고 격찬한 바 있다. 구노는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로 유명할 만큼 신앙심이 투철한 음악가였다. 바흐의 〈평균율 글라비어곡집 1부 전주곡〉과 〈푸가1번 C장조〉의 일부분을 편곡한 〈아베 마리아〉는 세속적인 성가의 대표곡으로 꼽힌다. 〈아베 마리아〉는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신부의 순교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구노가 작곡한 곡이라서, 우리 교회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작품이다.

구노는 한때 사제가 되려고 결심했던 독신자로서 가톨릭 음악의 주보 성인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 미사를 통해 종교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열려고 노력했다. “음악으로 끝없는 신앙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더구나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노는 고백했다. 프랑스적 감수성과 장엄한 기풍 속에 서정미가 녹아 있는 이 작품은 성령 강림절에 곳곳에서 연주되는 걸작이다.

성녀 체칠리아는 신앙심을 일깨우고 많은 음악가에게 번득이는 영감과 풍성한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음악의 주보 성인이다.

## 로피아노에서 만난 형제들

최성주 임마쿨라타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심에 힘입어 평소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사가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려 노력했다. 주일학교 교사, 레지오 마리아, 성가대, 사목회에 참여하는 평범하지만 진지한 신자였다. 그러나 우연

히 포콜라레운동을 접하면서 내 신앙은 마치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온 것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포콜라레 영성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 ‘만약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다운 삶’인지 매순간을 성찰하게 했다. 모태신앙을 가진 성실한 신자라는 자부심이 밑바닥부터 뒤집어졌다. 적당한 사랑, 적당한 신앙생활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부끄러웠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바뀌었다. 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단순한 행위도 지저분한 것이 보기 싫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휴지를 줍는 것이 신앙이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형제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 화를 내는 것도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아파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시민운동가인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몸에 땀 구슬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넘어가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즐거움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었다. 신앙의 기쁨, 일치의 기쁨을 아는 신자가 되고자 노력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속한 신앙공동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 우리 각자는 ‘형제를 통해 하느

님께 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퇴보하게 않기 위해,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마리아폴리’와 피정에도 빠지지 않았다. 전 세계 포콜라레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국제대회에도 참석했다. 그렇게 이탈리아 북부 피렌체 근교에 있는 ‘로피아노’에 가게 되었다.

‘로피아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부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은 마치 초대교회처럼 노동하고 복음적 삶을 경험하는 ‘사랑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사제, 수도자 등 다양한 성소의 포콜라레 회원들이 6개월이나 1년, 자신이 가능한 만큼 자기 나라를 떠나 로피아노에서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전문성을 완전히 내려놓는다. 목공소, 포도농장, 도자기공장, 의류와 육아용품을 만드는 봉제공장의 노동





자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처음 만난 형제들과 일치를 건설하기 위해 형제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항상, 즉시, 기쁘게” 하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화와 일치의 소도시 ‘로피아노’는 민족과 문화가 다른 이들이 ‘보편적인 형제애’를 배우고 실현하는 삶의 현장이었다.

2007년 6월 로피아노에서 1주일 간 열렸던 국제학교에 참석하면서 공부를 통해 가톨릭 신앙의 본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오전과 오후의 강의에 이어 휴식 후 저녁 강의까지, 마치 대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숙소와 강의실, 식당, 성당이 멀리 떨어져 있어 힘들기도 했지만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를 즐기며 걸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와 노동, 민족과 문화, 사회정의, 생태, 예술, 교육, 커뮤니케이션, 정치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하느님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전 세계 회원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지 확인할 수 있었

다. 그곳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형제를 거치지 않고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는 “하느님-형제-나”라는 삼항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보편적인 형제애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현해야 할 신앙인의 과제다.

로피아노의 ‘테오토코스 성당’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성모님의 망토자락을 형상화한 푸른 지붕, 성모님과 예수님의 일생이 파노라마로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 벽면, 햇살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제대 유리문 뒤의 커다란 감실이 매우 아름다운 성당이다. ‘테오토코스’를 향해 걸으면 멀리서 푸른 망토가 한눈에 들어오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경사면이 되신 성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젠가 로피아노의 주민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생기면 모든 장애를 뿌리치고 달려가고 싶다. 평화의 마을 ‘로피아노’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내가 기쁘고 행복해지는 ‘천상의 도시’다.



## 성모 발현지를 순례하며

김원창 미카엘 | 성지순례 전문가

얼마 전,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님께서 은퇴 후에 살고 계시는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평생 그러하셨듯 여전히 가난한 사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흔을 넘긴 주교님의 모습처럼, 그 집은 한적한 시골 마을과 꼭 어울렸습니다. 마을에 성당이 없어 거실이 미사를 드리는 곳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집을 방문한 건축가는 그 공간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리포터가 '주교님께서 사시는 곳이고 경당이 있는 곳인데, 성모상이 보



이질 않네요?’라고 묻자, 주교님께서서는 “성모상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스페인, 프랑스와 더불어 우리나라 신자의 성모신심은 유명합니다. 한겨울에 루르드를 순례하면서도 결코 ‘침수예절’을 거르지 않는 우리나라 신자들을 보면서 유럽의 순례자들은 자주 놀라고는 합니다. 성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커다란 성모상을 놓아두고, 가정집 탁자 중앙에도 성모상을 놓아두는 한국 신자들이니, 이쯤 되면 다른 이들이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탓하기도 어렵지요. ‘성당에 성모상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두봉 주교님의 이야기가 귀에 남은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순례단을 모집하더라도, 우리나라 신자들만큼 성모 발현지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하는 성모 발현 성지 순례, 성모님께서 직접 발현하셨던 세계 곳곳의 장소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프랑스의 루르드, 포르투갈의 파티마, 벨기에의 바뇌는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이지만, 사실 성모 발현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18세기에 성모님의 발현이 보고된 장소가 100여 곳이 넘는다는 비공식적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의도적으로 꾸



며내거나 환상이나 착각으로 생겨난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기는 했지만요.

이렇듯, 3대 성모 발현 성지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성모 발현지가 있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그 유명한 루르드 외에 파리 뒤풀리(Rue du Bac)의 기적메달 성당, 퐁맹(Pontmain), 라살라트(La Salette)가 있습니다. 라살라트는 해발 1,800m가 넘는 곳으로 전 세계 성모발현지 중에 가장 높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벨기에 바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보랭 역시 성모님께서 30여 차례나 발현하셨던 곳입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 발현은 남아메리카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친 기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전교하시던 야고보 사도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이래 사라고사는 대표적인 성모신심지입니다. 아일랜드에는 노크(Knock) 성모 발현지가 있는데, 다른 발현 때와 달리 단 한 마디의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으므로 ‘침묵의 성모님’이라 부릅니다. 최근 우리나라 신자가 많이 찾는 베트남의 라방은 1789년 박해받는 신자를 위로해 주

시기 위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며, 동남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모 발현지로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현은 1980년 르완다의 키베호라는 마을이었는데, 집단학살을 예언하신 지 10여 년 후 르완다에 내전이 일어나 100일간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학살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이탈리아, 체코 그리고 리투아니아 등에서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모 발현 성지가 많습니다.



오래전 영국 순례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로 나뉘는 영국은 비록 지금은 단일한 국가이나 각 지역 사람들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매우 뚜렷하여 사실상 별개의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러한데,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그리고 아일랜드는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이지요.

저희는 아일랜드에 있는 성모 발현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조차 생소한 ‘노크’ 발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순례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지는 아주 아름답고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조용히 기도하며 순례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했던 발현 성당과 최근에 지어진 아름다운 대성당, 작은 언덕 아래에 만들어진 성체조배실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곳에서는 여전히 샘물이 솟아나오고 있어, 여느 발현지와 같이 물통에 샘물을 받



기도 했습니다.

노크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특별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목격한 이에게 단 한 마디의 말씀도 남기시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배이신 성 요셉과 복음사가 성 요한께서 함께 나타나신 것이죠. 교회에서는 노크의 발현을 조사한 후, 그 어떤 말씀보다도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이지요. 순례단이 방문했을 당시 그곳은 매우 한적하고 조용해서, 함께 성지를 다니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후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조용한 가운데 노크 곳곳을 다니며 기도하였습니다.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가와 성당 정문으로 걸어가다보니 이미 몇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매님 한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노크 발현지가 참 좋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언젠가 꼭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 형제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곳은 참 중요한 곳이고 많은 신자가 순례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라면 더 많은 순례자가 찾아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루르드나 파티마, 바뇌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바뇌는 노크보다 훨씬 작지 않나요? 기도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도 조금 믿음이 덜하네요. 옆에 있는 요셉은 내가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다

며 날 놀리는 중이었지요.”

사실 성모 발현지를 순례하다보면 형제님과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순례자들은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성모님의 발현이 진짜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심이 약한 탓이라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현을 포함한 사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공적 계시를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성모님의 발현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교회는 기적이나 발현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세심히 조사하고, 그 사건이 신앙인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공표합니다. 게다가 발현지에서 만나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교회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바로 그 내용들이므로, 발현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과학적인 판단은 순례자의



뭉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모님의 발현과 메세지는 신앙의 대상도 아니며, 믿어야 할 교리도 아닙니다.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에게 좀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다면 성모님의 발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요. 루르드와 파티마 발현지에 여전히 많은 순례자가 모이는 것은, 그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더 이상 우리의 필요에 맞지 않으면 루르드나 파티마도 지금의 노크처럼 조용한 성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더 이상의 발현이나 사적 계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겠지요.

이후 형제님께서서는 한참이나 생각에 빠지시더니, 오후 내내 이곳 노크를 순례하면서 성모님의 발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한 시간이 아까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었던 참된 신앙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주님께 기도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더는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그분처럼 결코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의 화살기도



### 길음동성당 최병건 요셉

부디 주님 부활의 신비와 같이 약해진 믿음 공동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 개개인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 쉬우나, 그러한 서로간의 이해와 단합이 이루어져 모두가 한 마음 되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함께 계셔 주소서.



### 미아동성당 안세환 안드레아

사순시기가 지나면 부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으며 신앙을 지키기 힘들지만, 곧 좋은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간다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보내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에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은총을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신수동성당 김정원 소피아

+ 찬미 예수님, 올봄에도 어김없이 꽃들은 피어나 무심코 지나치는 저희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물해 줍니다. 저희에게 크고 작은 힘겨움들이 찾아올 때면 움츠렸던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늘처럼, 주님께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용기를 얻고 기쁨으로 가득찬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발산동성당 소희연 루치아

사그라들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 치솟으며 더더욱 몸을 움크리게 되는 봄인 듯합니다. 성당에서도 신자분들이 많이 줄어 아쉬운 요즘이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돌아가셨지만 사흘만에 부활하셨듯, 우리에게도 나중에 "진짜 지루한 코로나였어" 라고 회상할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주님의 부활처럼 그런 기쁜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청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 후암동성당 유재숙 안나

평화의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피난을 와 오랜 세월 고생을 한 부모와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는 모습은 한 단면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통과 불안, 두려움에서 그들을 구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멈추길 도와주소서.



### 별양동성당(수원) 박홍석 파스칼

피조 세계의 모든 곳에 현존하고 계신 하느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인간의 무지와 욕망 때문에 곳곳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질 지경인데도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만을 탐닉하며 지금도 막무가내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우리들부터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이 부활절에 깨닫고 피조물의 아픔을 깊이 뉘우치게 하소서.



### 평촌성당(수원) 황재웅 바오로

빛이신 주님! 아직도 힘겨운 코로나19, 그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사순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습니다. 특별히 교황님의 '함께하는' 시노드라는 초대를 통해 각자에서 모두가 함께하여 이겨내고 풀어야 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도록 굳센 믿음을 주소서! 나약한 저희에게 힘과 용기내어라 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당신을 맞이하도록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소서.



### 압구정1동 성당 서영주 유스티나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 저희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지금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주는 배움과 생동감을 즐겁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아침마다 그들의 눈동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새학기를 맞아 저희 자녀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친구들의 소중함을 간직하게 해주소서.



### 명동성당 김지숙 안젤라

주님, 사순시기를 맞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저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저희는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타인에게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남을 단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화합하며 부활을 맞아 서로 하나되게 하소서.



## 교구평협·회원단체 2022년 6월 ~ 2022년 11월 행사 일정

### 교구평협 행사 일정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전반기 연수회**  
· 일시: 2022년 6월 10일(금)~11일(토)  
· 장소: 서울 꾸르실료 회관  
· 문의: 02-777-7013
- \* **후반기 연수회**  
· 일시: 2022년 9월 16일(금)~17일(토)  
· 장소: 의정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 집  
· 문의: 02-777-7013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팬데믹 2년, 평신도사도직 성찰과 전망 세미나**  
· 일시: 2022년 하반기 중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31-876-2004
- \* **본당 사목 계획 수립 연수**  
· 일시: 2022년 11월 중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31-876-2004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총회장 연수**  
· 일시: 2022년 5월 7일(토)  
·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 문의: 031-246-3660
- \*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 일시: 2022년 11월 중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31-246-3660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임원 수련회**  
· 일시: 2022년 6월 24일(금)~25일(토)  
· 장소: 미정  
· 문의: 062-236-3004
-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 일시: 2022년 9월 24일(토)  
· 장소: 강진 다산초당 일대(예정)  
· 문의: 062-236-3004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평협임원 상반기 피정**  
·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33-765-4224

#### \* 평신도 대회 - 창립50주년 기념

- 일시: 2022년 11월 5일(토)
- 장소: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 주제: '빛의 길~함께 걷는 광주평협!'
- 문의: 062-236-3004

#### \* 2023년 교구장 사목교서 직무연수

- 일시: 2022년 10월 29일~11월 26일(토, 일)
- 장소: 각 지구별 안내
- 문의: 062-236-3004

#### \* 교구 평협 회원과의 간담회

- 일시: 2022년 11월 6일(토)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64-729-9508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재해구호봉사단 연합회 교육

- 일시: 2022년 6월 중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64-729-9508

#### \* 신앙생활 수기(공모) 시상식

- 일시: 2022년 11월 6일(토)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64-729-9508

##### \* 신학생과의 간담회

- 일시: 2022년 8월 중
- 장소: 제주교구 가톨릭회관
- 문의: 064-729-9508

#### \* 골롬반 신부님과의 간담회

- 일시: 2022년 11월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64-729-9508

##### \* 순례길 '김대건길' 걷기

- 일시: 2022년 9월 17일(토)
- 장소: 추후 안내
- 문의: 064-729-9508

## 회원단체 행사 일정

###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 \* 한마음 축제

- 일시: 2022년 6월 11일(토)
- 장소: 광주 평생교육원
- 문의: 062-227-7128

#### \* 교구 간부 연수

- 일시: 2022년 8월 19일(금)~20일(토)
- 장소: 미정
- 문의: 062-227-7128

#### \* 평의회 단장 연수

- 일시: 2022년 8월 20일(토)~21일(일)
- 장소: 한국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 문의: 062-227-7128

#### \* 월간 레지오 명예기자 연수

- 일시: 2022년 10월 21일(금)~22일(토)
- 장소: 청주
- 문의: 062-227-7128

#### \* 평의회 4간부 연수

- 일시: 2022년 11월 12일(토)
- 장소: 한국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 문의: 062-227-7128

#### \* 교구 간부 연수

- 일시: 2022년 11월 18일(금)~19일(토)
- 장소: 부산
- 문의: 062-227-7128

### 월드와이드매리자엔카운터한국협의회

#### \* 교구대표 간담회

- 일시: 2022년 7월 2일(토)~3일(일)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문의: 02-511-9902

#### \* 한국ME 대표팀 제47차 아시아회의 참가

- 일시: 2022년 8월 25일(목)~31일(수)
- 장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문의: 02-511-9902

#### \* 2022년 하반기 정기총회

- 일시: 2022년 10월 22일(토)~23일(일)
- 장소: 아론의 집(수원교구, 성라자로마을 내)
- 문의: 02-511-9902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 회원피정

- 일시: 2022년 11월 4일(금)~5일(토)
- 장소: 광주대교구 목포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 내용: 전국임원회의, 전국회원 친교의 시간
- 장소: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산하 8개 교구 회원
- 문의: 02-755-7060



###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었으며 종교와 관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이시대의 표상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의 계승·확산을 위한 정신문화 공간으로, 방문객 및 수련객에게 정신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원 내 복원되어있는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는 초가삼간 옛집의 모습에 좁은 텃마루와 낮은 처마가 정감을 더해준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추기경의 삶과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회고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추억여행이 될 것이다.

출처: 군위군청 홈페이지 www.gunwi.go.kr  
 소재지: 경북 군위군 군위를 군위금성로 270  
 문의처: 054-383-1922



##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 활동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평신도 명예기자 명단(2022년 6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조수희	크리스티나	clas@clas.or.kr
춘천평협	한은숙	막달레나	haneoun@naver.com
대전평단협	강현인	글라라	vingib@hanmail.net
인천평협	신인수	프란치스코	kgph@cainc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의정부평협	박진균	안드레아	soilsoul@uca.or.kr
부산평협	오지영	젬마	gemma784@hanmail.net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i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이지영	베로니카	8458gy@hanmail.net
제주평협	강선희	아네스	sun830315@naver.com
구르실료한국협의회	김미녀	리디아	oh-mn@hanmail.net
월드와이드매리지엔카운터	정호강, 홍성희	필립보, 마리스텔라	chhgwj@hanmai.net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이영아	아네스	cbak@catholic.or.kr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배영미	세실리아	02bae@cmcnu.or.kr
한국가톨릭학교장회	민혜숙	효임 콜롬바 수녀	mincolumba@hanmail.net

##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신도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영성체험 등의 칼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실 곳 : clak0723@naver.com  
 글자 크기 10pt, A4 용지 1.5매 내외 / 얼굴 사진, 본문과 관련된 사진 첨부 / 성함, 세례명, 연락처 필수 기재